중앙일보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882호 Thursday, February 15, 2024 A

"불체자들에게 무상 건강보험까지?"

SPECIAL STORY

북VA 의원들 주도 각종 급진 법안'논란'
공화당 물론 일부 민주 온건파도'반발'

버지니아 상원의회가 미성년 불법체류자에게 무상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미성년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등 버지니아주의 의료부조 프로그램 가입 권리를 부여한다.

이 법안은 스패니쉬 불법이민 지원단체 CASA의 적극적인 로비의 결과물이다. 루이스 아귈라 CASA 버지니아 지부장은 "버지니아 웃브릿지에 위치한 우리 단체에 방문하는 불법체류 주민의 90% 이상이 건강보험이 없다"면서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건강보험의 소중함을 절감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무보험 불법체류자를 보호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법안을 주도한 가잘라 하쉬미 상원의원은 "버니지아에는 아직도 보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8만8처여명에 이르며 인구비율로 따져 전국 50개주 중 25번째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제니퍼 보이스코 상원의원 등 북버지니아 지역 출신 의원들이 주도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넉넉하지 않은 예산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지만, 이같은 원칙에 위배되는 법안이며 이들의 존재를 공식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심지어 DACA(미성년 시절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해 체류신분이 없는 자에게 임시 체류 및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 수혜자에게 경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경찰관 등 법집행기관은 업무 특성상 영주권자 지원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불법체류자에게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DACA 수혜자는 모두 60만명에 이르며,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모두 6개주가 이들에게 경찰관 채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온건파는 강성 의원들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여야 다수당 지위에 올라선 후 총기 규제 법률과 동성애, 마리화나 관련 법률 등을 대거 성사시켰으나 결국 2021년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넘겨주는 등 심각한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민주당은 2023년 선거에서 다시 양원 다수당 지위를 회복했으나 박빙의 우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버지니아에서 민주당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민주당 지지자들도 온건한 성향을 지니고 있어 불법체류자 복지 혜택에 대해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주택렌트비 인상 상한선 법안을 통해 렌트비 인상 최대치를 15%로 묶어두려고 했으나, 시장 자율을 주장하는 민주당 온건파의 반대로 무산될 정도로, 진보적 색채가 옅다. 공화당은 하원 표결에서도 당론투표를 임하고, 글렌 영킨 주지사 또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김옥채 기자

한국, '북한 형제국' 쿠바와 65년만에 수교

뉴욕서 합의 … 193번째 수교국 돼
유엔 내 미수교국 시리아만 남아

한국이 14일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중남미 공산국가인 쿠바와 수교했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는 것은 물론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더욱 심화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14일 "한국과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다.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된 상태였다.

이날 합의로 유엔 회원국 중 한국이 아직까지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시리아가 유일하다. 외교부는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은 한국의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과 쿠바가 문화, 인적 교류, 개발 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했던 것도 수교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약 1만4000명의 한국 국민이 쿠바를 방문했다.

정부는 북한의 오랜 우방이자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을 물밑에서 타진해 왔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5월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와 각료회의 계기에 쿠바 측 대표로 참석했던 쿠바 외교 차관과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현주 기자

'트럼프 리스크' 수면 위로 … 한국, 서둘러 미국과 NCG 서명

한·미 확장억제 강화 조치 문서화

오는 11월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겨냥해 국방비를 올리지 않으면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격려하겠다는 취지의 폭탄발언을 내놓으며 한국에서도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임 시절 트럼프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후속 단계를 문서화하는 등 'NCG 못 박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지난 12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의 결과물로 출범한 NCG가 향후 다룰 목표 등이 기술됐다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국방부는 특히 "NCG는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 간 협의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2면 '트럼프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아수라장 된 수퍼보울 퍼레이드 14일 수퍼보울 우승팀 캔사스시티 치프스를 축하하는 퍼레이드 현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14명 이상이 부상했다. 경찰은 2 명의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알렸다. » 관계기사 5면 [로이터]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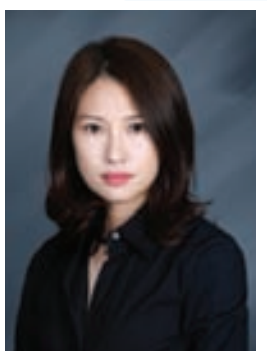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여당 서울 라인업 윤곽 … 권영세〈용산〉·나경원〈동작을〉 등 25명 단수공천

최대 승부처 서울 19곳 조기확정, 강남 텃밭엔 조은희·박정훈·배현진
험지엔 태영호·호준석·전상범, 격전지엔 오신환·이재영 등 추천

국민의힘이 4·10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19곳의 후보를 14일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또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 공천이 확정된 사람은 4선의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한 명(서울 용산)이었다.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발표한 단수추천 지역은 격전지이거나 열세 지역이 많았다. 본선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결정을 서두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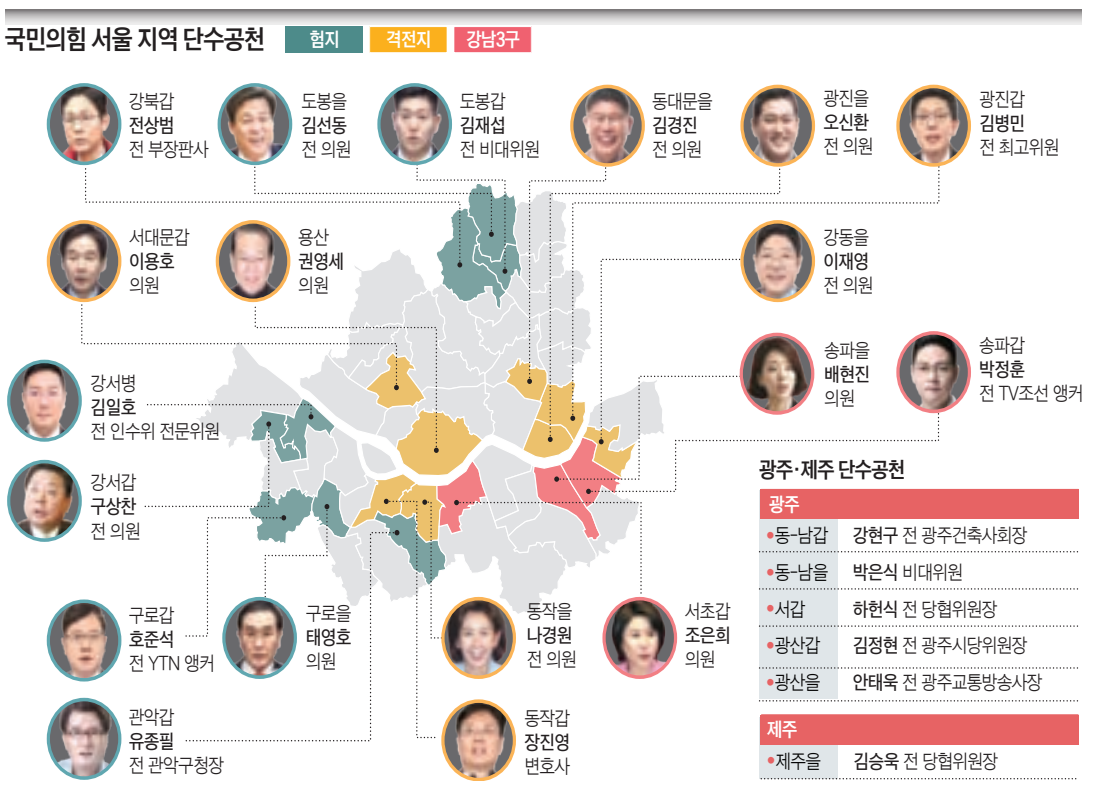
한강벨트 격전지로 분류되는 동작을 후보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확정됐다. 민주당 공천 결과에 따라 이수진 의원과의 리턴 매치나 추미애 전 장관과의 빅매치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고민정·전혜숙 의원이 버티고 있는 광진갑·을에는 각각 김병민 전 최고위원과 오신환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대문갑엔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떠난 민주당 출신 이용호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 현역인 장경태·이해식 의원의 지역구인 동대문을과 강동을엔 김경진·이재영 전 의원이 단수추천됐다. 영입인사인 전상범 전 부장판사, 호준석 전 YTN 앵커는 각각 강북갑과 구로갑에 단수추천됐고 강남갑 현역인 태영호 의원은 스스로 도전 의사를 밝힌 구로을 후보로 확정됐다.

텃밭 강남3구 총 8개 지역구 중엔 서초갑(조은희 의원)·송파갑(박정훈 전 TV조선 앵커)·송파을(배현진 의원)의 후보가 확정됐다.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과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3선을 노리는 박성중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 서초을은 경선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나머지 서울 30개 지역구를 경선 또는 전략공천, 재공모 지역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이승환(중랑을)·여명(동대문갑)·김성용(송파병) 등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들은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에 도전장을 냈지만, 단수추천 명단에서 빠졌다.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해 논란을 빚었던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경기도 접전지역에 공천될 가능성이 크다. 역시 강남을을 노렸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지역구 재배치 가능성이 있다.

중-성동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과 경선이 예상된다. 한 위원장의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성 발언으로 '사천(私薦)' 논란이 일었던 중-성동갑도 단수추천 지역에서 제외됐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후보자들이 원치 않으면 지역구 인위적 재배치는 없다"고 했다. 김기정 기자



» 1면 '트럼프 리스크'에서 이어집니다

정부가 '공동의 핵 및 전략 기획'을 부각한 건 NCG를 통해 미국의 핵 운용 과정에 한국의 발언권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수동적 의미의 확장 억제에서 더 나아가 한국이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 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번갈아 NCG 회의를 열었다. 이번 프레임워크 도출은 향후 절차를 양국 국방부가 주도한다는 뜻이다. 개괄적인 총론에 합의한 대통령실·백악관의 '하우스 투 하우스' 논의를 넘어 NCG의 실질 운용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2차 NCG 회의에서 차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올해 8월)부터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3차 회의는 오는 6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회의에선 한국이 핵 작전 시나리오를 비롯해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운용 계획안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왼쪽)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지난 12일 펜타곤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을 상세히 요구하고, 미국은 어느 선까지 한국과 공유할지 밀고 당기기를 통해 정해가는 수순일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중반까지 핵 전략 기획 및 운용 지침을 확정하기로 양측은 이미 합의했다.

트럼프는 지난 재임 기간 중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으로 딴지를 걸어 왔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를 방위비에 얹으려고 시도도 했다. 전략자산 전개나 사드 운용 비용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상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유정 기자

이재명 "떡잎 져야 새순 자란다" 공천 물갈이 공식화에 야당 술렁

운동권·올드보이 청산론에 무게
일각 "껄끄러운 인사 배제 의심"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처음 공천 물갈이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며 "장강의 물은 뒤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낸다"고 말했다. 86 운동권과 '올드보이' 청산론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적었다.

그러자 "친명을 위한 선택적 청산"(수도권 의원)이란 의구심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 대표에게 직접 불출마를 권고받은 문학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기도팀' 비선 농간에 흔들리는 당"이라고 썼다.

이재관 전 천안시장 후보의 천안을 전략공천설로 코너에 몰린 양승조 전 충남지사도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괴감으로 몸과 마음을 가누기 힘들지만 이것도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썼다. 이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친명 김남근 변호사 전략 공천설에 "제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여부가 파열음의 크기를 좌우할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 대표가 그의 면담 요구를 거부 중이고 친명계는 "지도부 판단에 맡기라"(조상호 법률부위원장)며 압박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성동갑은 전략 공천지역인데도 임 전 실장이 계속 공천을 요구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친문(親文) 의원은 통화에서 "물갈이를 핑계로 이 대표가 껄끄러운 인사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호남에서 현역 의원이 친명계 원외 인사에 고전 중이라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당내 술렁임은 커지고 있다. KBC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양자 경선이 확정된 광주 동·남갑에선 현역인 윤영덕 원내대변인(24.0%)이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52.2%)에, 광주 광산갑에선 이용빈 의원(33.3%)이 친명계인 박균택 당 대표 법률특보(42.2%)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강보현·성지원 기자

워싱턴 날씨 (°F)

2월 15일(목) 51~36

16일(금)	43~33		19일(월)	50~33	
17일(토)	41~27		20일(화)	54~37	
18일(일)	45~31		21일(수)	57~40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12001 Lee Jackson Memorial Hwy, 2nd Fl Fairfax, VA 22033 (T. 703-318-0067)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캐시플랜, 각종 의료보험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예약환자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올 해 3·1절 기념식 "범동포적 행사로"

올해 105회를 맞는 3·1절 기념식이 워싱턴 주요 한인 단체들이 연합해 치러진다.

이번 기념식은 광복회(회장 김 은)를 중심으로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스티브 리), 버지니아 한인회(회장 은영재), 메릴랜드 한인회(비대위원장 헬렌 원), 메릴랜드 총한인회(회장 정현숙) 등이 공동 주최한다.

여기에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보훈부가 후원하며 6.25참전유공자회 워싱턴 지회(회장 손경준)를 비롯 각종 한인 단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각 주최 단체 대표들은 지난 13일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예산, 행사 절차 및 진행에 관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조기중 총영사, 이지호 참사관, 이길현 보훈관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기중 총영사는 워싱턴 지역 동포들의 통합을 강조하며 "연합에 중점을 둔 3·1절 행사로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조기중 총영사, 헬렌 원 비대위원장(MD한인회), 김 은 회장(광복회), 정현숙 회장(MD총한인회), 고은정 수석부회장(워싱턴한인연합회), 허 진 부회장(버지니아한인회)

한편, 3·1절 기념식은 오는 3월1일 오후 3시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센터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3·1절 행사에 참여할 협회 및 단체를 모집 중이다. ▷문의: 410-624-8660(김은 광복회장)

김윤미 기자

"선조들의 위대한 독립 과정 알린다"

3.1 독립운동 기념 강연회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미주통일연대 워싱턴(회장 김유숙·사진)이 주최하는 두번째 강연이 내달 3일(일) 오후3시, 한인커뮤니티센터 2층 강당에서 열린다.

'미주독립운동가들로부터 배우는 우리의 통일운동'을 주제로 열릴 이번 강연에는 3명의 연사가 참여해 미주 선조들이 만들어 낸 독립의 역사 과정을 소개한다. 김유숙 회장은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열망과 의지표출로 광범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독립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며 "선조들이 이뤄 낸 위대한 독립 과정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DNA와 통일한국'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 장태한 교수(UC리버사이드)가 '안창호 선생과 미국내 한인촌 파차파' 영상 강좌를 진행하며, 마이클 이 박사(전 CIA 요원)가 대면 강좌로 '이승만 박사와 대한민국 건국', 제임스 플린 (글로벌피스재단) 회장이 '박용만 선생과 통일비전'에 대해 강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재필 박사 영상 시청 순서를 갖는다. 주최측은 "이날 행사에는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참석자들은 이어폰과 전화기를 지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202-577-3284(김유숙 회장)

김윤미 기자

MD 무어 주지사 지지율 하락세

호건 전 주지사에 비해서도 낮아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민주·사진)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곤잘레스 폴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무어 주지사 지지율은 58%,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28%, 모른다는 응답이 14%를 기록했다. 2023년 6월 첫 조사 당시 지지율이 55%에서 2023년 9월 60%로 상승했다가 다시 이번 조사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민주당원 지지율은 74%, 공화당원은 27%, 무당파는 52%, 백인 52%, 흑인 70%, 여성 62%, 남성 53% 등을 기록했다.

페트릭 곤잘레스 대표는 "지지율 등락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지지세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래리 호건 전 주지사(공화)가 취임 2년차 8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에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판매세를 인상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37%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원은 53%였으 공화당원은 13%에 그쳤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재원 우선 배분 대상이 도로/다리냐, 대중교통수단이냐는 질문에 대해 도로/다리(64%)가 대중교통수단(26%)를 압도했다. 특히 공화당의 도로/다리 선호도는 82%를 기록했다.

훔친 총기를 소유한 경우 중범죄 처벌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88%가 그렇다고 답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거래할 경우 최소 10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비율이 8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1월23일부터 2월2일 사이 815명의 등록유권자를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서 3.5% 포인트였다.

김옥채 기자

미주한미동맹재단 이경구 국방무관 예방

이경구 국방무관, 최태은 회장, 류태호 부회장

미주한미동맹재단(회장 최태은)은 지난 9일, 워싱턴DC 소재 아미 네이비 클럽에서 이경구 국방무관(육군 소장)을 예방하고 재단의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최태은 회장은 "2022년 재단 창립 이후, 한국의 가치와 한미동맹 의의를 미 주류 사회에 널리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왔다"면서 "올해 PIP학생대회를 비롯해 MTL포럼 등 보다 폭넓은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이경구 국방무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의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속해서 재단의 여러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류태호 부회장은 "재단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정부 차원의 지지와 후원이 절실하다"면서 "재단이 진행하는 사업에 무관부의 격려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월례회 엘리콧시티 벧엘교회서 열려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회장 김택조 목사)가 12일, 메릴랜드 엘리컷시티 소재 벧엘 교회(담임목사 백신종)에서 월례회를 개최했다. 예배는 이석해 목사의 인도로 박서규 목사가 대표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 설교는 백신종 목사가 고린도후서 2:15-16절의 말씀을 인영해 '그리스도의 향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원로목사회는 다음달 18일(월), 메릴랜드 콜롬비아 소재 가든 교회(담임목사 한태일)에서 월례회를 진행한다.

김윤미 기자

'이산가족 등록법' 하원 외교위 통과

북한에 이산 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을 위한 '이산가족 등록법(HR 7152)'이 연방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미셸 스틸(가주·공) 의원과 제니퍼 웩스턴(버지니아·민) 의원이 지난달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주 한인들의 이산 가족 상봉을 돕기 위해 관련 기록을 남겨 가족들이 만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등록부(National Registry)'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는 8일 HR 7152를 상정해 찬성 47대 반대 0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국무부에 추가 예산 100만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되 포함됐다.

최인성 기자

대한항공 합병 성사 이젠 미국에 달렸다

EU 경쟁 당국 조건부 승인
여객부문 티웨이항공 낙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3년여간의 심사 끝에 9부 능선을 넘어서며 초대형 항공사 탄생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3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양사의 합병을 승인함에 따라 성사 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공이 미국 손으로 넘어갔다. 일본에 이은 EU 승인으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국 가운데 미국만 남겨 놓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5월 EU 경쟁 당국이 유럽지역서 여객, 화물 사업의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11월 2일 시정조치안을 제출했으며 심사 끝에 시정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됐다.

EU 경쟁 당국이 제시한 조건으로는 여객부문에서 한국의 저가항공사(LLC)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중복노선을 이관받아 운항을 개시하는 것과 화물부문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매각 등이 포함됐다.

합병 후 국제선 일부 노선 항공권 가격 상승 우려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정부 승인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임의로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일리지의 경우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되더라도 2년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별도 독립회사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아시아나 마일리지 우선 사용을 유도한 후 잔여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전환율을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 앞으로 미국 경쟁 당국과의 협의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

한인 여성, 대형 출판사 사장 됐다

푸트남 부사장 출신 샐리 김
문학 출판 공헌 에디터 수상도

〈리틀, 브라운앤컴퍼니〉

대형 출판사 리틀, 브라운앤컴퍼니의 사장으로 한인 여성이 임명됐다.

출판 전문잡지 퍼블리셔스 위클리(Publishers Weekly)는 13일 G.P.푸트남(G.P. Putnam's Sons) 출판사의 샐리 김(한국 이름 김자열·사진) 수석 부사장이 리틀, 브라운앤컴퍼니 사장 및 출판인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오는 3월 4일부터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리틀, 브라운앤컴퍼니 모그룹 하셋(Hachette UK) 데이비드 셸리 CEO는 성명을 통해 "뛰어난 경력을 가진 샐리가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그의 감각적인 편집으로 우리 출판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함께 할 여정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리틀, 브라운앤컴퍼니가 출판한 책을 많이 접했다"며 "이러한 경험들이 출판자가 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목소리를 육성하고 리틀브라운의 성장에 가담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지속적인 기간 문학 출판에 공헌을 기여한 에디터에 주어지는 상인 포츠 앤 라이터스(Poets & Writers) 에디터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수상 소감을 통해 "한국에서 태어난 자란 아버지는 1969년 단돈 60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오셨다. 이민자로서 힘든 삶이었지만 아버지는 연연해 하지 않고 항상 행운이라고 느끼셨다"며 "출판사를 다니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출판자로서 우리의 방식으로 훌륭한 작가와 책을 찾아다니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일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이먼&슈스터터치스톤 편집국장으로 근무했으며 하퍼 콜린스, 크라운 퍼블리싱 그룹, 세인트 마틴 프레스에서 시니어 에디터로 30년의 출판 경력을 쌓았다.

그는 '나를 찾아줘' 출가나 9개월 만에 20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길리언 플린, 스트랜드 크리틱 상·굿리즈 초이스 상 등 다양한 문학상을 받은 리사 웅거, 전 세계 19개국에 '굿 하우스'를 번역·출간한 앤 리어리, 코트니 마움, 자니 아텐버그 등 수많은 베스트 셀러 작가들의 책 편집을 맡은 적 있다.

한편 리틀, 브라운앤컴퍼니는 1837년 찰스 커핀 리틀과 제임스 브라운이 처음 설립했으며 본사는 보스턴에 위치해 있다. 이 출판사는 2018년 타임, 워싱턴포스트, 뉴스위크, 피플매거진이 선정한 최고의 책 베스트셀러 작가 매들린 밀러의 '키르케', 스티븐 킹의 찬사를 받은 케이트 앳킨슨의 '필사(Transcription)' 등을 출판했다. **김예진 기자**

손자 주려 만든 곰 인형 인기몰이

뉴욕 한인 진 김씨 창업기
코로나 때 30년 식당 접어

진 김씨가 직접 만든 '테디 베어'를 안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곰 인형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뉴욕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한인 업주가 만들어주는 '테디 베어(teddy bear)'에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11일 수공예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엣시(Etsy)'에서 수제 곰 인형을 제작해 판매하는 진 김(64) 씨의 삶을 소개했다.

김씨가 만드는 곰 인형은 특별하다. 아기 담요, 낡은 셔츠, 천 조각 등이 곰 인형 제작에 쓰인다. 피가 묻어 있는 옷도 있다. 누군가를 추억할 수 있다면 모든 게 곰 인형의 소재다. 이러한 천 조각은 추억이 담긴 인형으로 재탄생한다. 김씨는 "아기를 일찍 떠나보낸 한 엄마가 추억을 위해 자녀에게 덮어주었던 담요와 아기 사진을 보내왔다"며 "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팠는데 아기를 추억하기 위해 그 담요로 곰 인형을 만들어 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원래 뉴욕 월스트리트와 뉴저지 등에서 30년간 식당을 운영해왔다. 재봉틀을 다시 잡게 된 건 팬데믹 사태 때문이었다. 운영난으로 식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사업을 접고 당시 3살이었던 손자 루카스를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곰 인형을 만들어주려고 재봉틀을 잡게 됐다"며 "그때 딸이 수제 곰 인형을 보고 너무 좋아하면서 비즈니스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던 게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평생 요식업계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업종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이 없었다. 그때 김씨의 딸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곰 인형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고 그때부터 조금씩 주문을 받게 됐다.

곰 인형 제작 업체 '진스베어스LLC'는 그렇게 시작됐다. 지난 2021년의 일이다. 창업 1년 후 김씨의 집에서 시작된 진스베어스는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지역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현재는 4명의 직원도 두고 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냈던 딸 그레이스는 현재 파트너로 함께 일하는 중이다.

현재 김씨의 수제 곰 인형은 '엣시'에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개업 이후 엣시에서만 7000개 이상의 곰 인형을 제작해 판매했다. 지금은 곰 인형뿐 아니라 베개, 나비넥타이, 아기 이불, 하트 장식품 등 다양한 제품도 제작 중이다. 곰 인형의 경우 크기 등에 따라 68~85달러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91년 남편, 당시 2살된 아들과 함께 뉴저지로 이민을 왔다. 처음에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다 이후 일식당을 개업했었다. **장열 기자**

캔자스시티 100만명 모인 행사서 총격

슈퍼보울 우승 축하 퍼레이드 중 총기 난사…"1명 사망·15명 부상"

14일 캔자스시티에서 총격 부상자가 이송되고 있다.(사진 왼쪽), 캔자스시티 총격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오른쪽) 캔자스시티[미주리주] AFP=연합뉴스

14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보울 승리 축하 퍼레이드 중 총격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캔자스시티 경찰국(KCPD)은 이날 오후 2시경(중부시간)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 "유니언역 근처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며 "이 지역을 떠나라"고 공지했다. 이어 "주차장 근처인 유니언역 서부에서 총격이 발생해 다수가 총에 맞았다"며 "우리는 무기를 지닌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총격 부상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이 지역 근처에 있는 누구든 가능한 빨리 현장을 떠나달라"고 당부했다.

AFP통신과 ABC방송 등은 소방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또 부상자들 가운데 3명이 위독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은 생명에 위협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지역 방송 KMBC 기자는 현장에서 여러 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 팀의 슈퍼보울 우승을 축하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로 유명한 트래비스 켈시 등 주요 선수들도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위프트의 참석 여부도 관심을 모았으나, 스위프트는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이날 퍼레이드 참가자는 총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캔자스시티 시 당국은 추정했다.

현장에는 이런 대규모 인파 관리를 위해 경찰 등 법 집행기관 인력 600명 가량이 배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육구 일부는 학생들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휴교를 할 정도로 이번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열기가 뜨거웠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AP에 따르면 캔자스시티 시 당국과 치프스 팀은 이번 행사 비용으로 각각 약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캔자스시티 치프스는 지난 11일 열린 제58회 슈퍼보울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를 25 대 22로 무너뜨리며 우승컵을 차지했다.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통산 4번째 우승으로, 연고지인 캔자스시티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

세금보고 초기 환급액 작년보다 29% 감소

올해 세금보고 초기 평균 환급금이 전년보다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지난 9일 공개한 개인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세금보고 접수를 시작한 지 5일째인 지난 2일자 기준으로 평균 환급금이 1395달러를 기록, 지난해 초기 12일간 평균인 1963달러보다 28.9%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총 환급금 규모는 36억4900만 달러로 전년도 150억6960만 달러보다 76.8% 줄었으며 환급 건수도 261만6000건으로 전년도 799만6000건보다 67.3% 감소했다. 접수 건수는 1531만8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9.1% 적었으며 처리 건수 역시 지난해보다 16.9% 줄어든 1392만8000건에 달했다.

개인 소득세 신고 동향 (2월 2일자, 5일째)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
접수 건수	15,318,000건	18,946,000건	-19.1
처리 건수	13,928,000건	16,767,000건	-16.9
전자 보고 건수	14,909,000건	17,508,000건	-14.8
환급 건수	2,616,000건	7,996,000건	-67.3
전체 환급금	36억 4900만 달러	156억 9600만 달러	-76.8
평균 환급금	1,395달러	1,963달러	-28.9

자료 = 국세청

온라인으로 접수된 전자신고는 1490만9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4.8% 줄었다. 하지만 전자신고 비율은 전체의 97.3%로 지난해 92.4%보다 높았다.

환급금 수령방식 중 하나인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는 총 264만5000건에 40억8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1.4% 줄었으며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25% 줄어든 1543달러에 그쳤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 휴잇의 마크 스테버 세무정보담당은 "이번 IRS 보고는 매우 예비적인 데이터다. 5일치 분량으로 1년 또는 3개월 반의 세금보고 시즌 전체를 예측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IRS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평균 환급금은 3167달러였다. 스테버 세무정보담당은 "일반적으로 조기 신고하는 근로 소득세 수령자나 자녀 세액공제 수령자들이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더 많은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총선 재외선거 신고·신청 15% 줄어든 15만명 그쳐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수가 15만70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시각 12일 오전 7시 현재 재외선거 신고·신청자는 15만701명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17만7348명)보다 15.0% 줄었다.

총 신고·신청자 중 국외부재자는 12만541명, 재외선거인은 3만160명(영구명부 등재자 2만5743명)이다.

유학생·일반체류자 등이 감소하면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는 지난 총선 당시(214만9691명)보다 17만5316명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3만4490명이 신청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김은별 기자

밸런타인데이 사탕 비싼 이유

포장 바꿔 3배 폭리" 지적 "수량 한정 비용 들어" 항변

밸런타인데이 대목을 노리고 사탕 제조업체들이 상품 포장지만 바꿔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CNN에 따르면, 사워패치키즈, 졸리런처스, 하리보 등 일부 업체들은 양과 내용물이 거의 유사한 제품의 포장지만 바꾸고 가격을 최대 200% 이상 올려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및 요리 웹사이트 '팬트리 앤 라더'의 공동창립자 및 경영자 베로니카 플레처는 밸런타인데이 버전의 사탕과 평소 판매하는 일반 사탕 제품을 비교한 결과 상당한 가격 차이를 발견했다. 월마트는 하트모양 박스에 담긴 밸런타인 테마 사워패치키즈(3.4 온스)를 3.96달러에 판매한다. 동일 업체의 비슷한 용량의 일반 제품(3.5온스)의 판매가는 1.24달러로 3배 이상 비쌌다.

게다가 뉴욕에 위치한 CVS에서 같은 제품을 7.49달러에, 밸런타인 테마 사워패치키즈 수박맛(3.4온스)은 5.99달러에 판매 중이었다.

이외 밸런타인데이 버전의 하리보 골드베어 구미베어 (7온스)는 5.97달러인데 반해서 양이 1온스나 많은 일반 제품(8온스)의 가격은 2.38달러다.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소비자 보호 웹사이트 컨수머월드의 에디터 에드거 드워스키는 "일부 기업이 밸런타인데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 인상이 인플레이션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는 밸런타인데이 상품처럼 기념일 상품은 한정된 수량만 제작되고 판매되기 때문에 제품보다 제조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어서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하은 기자

민주, 대선국면서 치러진 보궐선거 승리로 모처럼 기세

스워지, 약 8%p차 승리… 민주, 하원 의석차 '6'으로 좁혀
'남부국경난맥상 대선까지 유지' 공화당 전략에 의문표

여당인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인 가운데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모처럼 기세를 올렸다.

13일 치러진 뉴욕주 제3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톰 스워지 전 하원의원은 공화당의 마지 필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93.4% 개표 상황에서 스워지 후보는 53.9%의 득표율로 46.1%의 필립 후보에 7.8% 포인트 앞섰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 지역구의 공화당 소속 현직이던 조지 산토스 의원이 거짓 이력과 선거자금 유용 등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제명되면서 치러진 데다, 뉴욕주가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승리 자체가 이례적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

그럼에도 뉴욕주 제3선거구가 포함하는 롱아일랜드 지역의 최근 각종 선거에서 공화당이 강세를 보인 상황에서 공화당 보유 의석을 탈환하며 하원의 의석 차를 6석 차(공화 219석-민주 213석)로 줄인 것에 민주당은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 미국 매체들은 대선의 중요 이슈가 된 국경통제, 즉 불법이민 문제와 관련한 시사점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톰 스워지 하원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뉴욕주는 불법이민자들의 입국 통로인 남부 국경과 멀지만 근래 남부 국경을 통해 넘어 들어온 불법이민자들을 현지 주정부가 뉴욕과 같은 북부 대도시로 대거 이송하면서 뉴욕주에서도 불법이민 문제는 핫이슈가 됐다.

특히 국경통제 강화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을 담은 안보 패키지 예산안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 속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국경의 난맥상은 대선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경 상황이 공화당의 대여 공세 핵심 이슈가 된 가운데, 스워지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자신이 당선되면 불법 이민 통제 강화를 위해 여야 모두와 머리를 맞댈 것이라며, 비교적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따라서 스워지의 승리는 국경을 현 상태 그대로 방치해서 11월 대선 때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마냥 공화당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스워지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자신과 조 바이든 대통령을 분리하는 전략을 썼다는 점에서 이번 승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가도에 청신호를 킨 것으로 보긴 무리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트럼프, 방위비 압박 계속
"나토 발언 이후 돈 다시 내기 시작"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현황이 담긴 그래픽(아래)과 함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나토 국가들이 돈을 다 갚아야 한다. 이들 국가가 미국을 조롱하고 있다"며 "나토에 대한 나의 발언 이후에 회원국 모두 다시 돈을 내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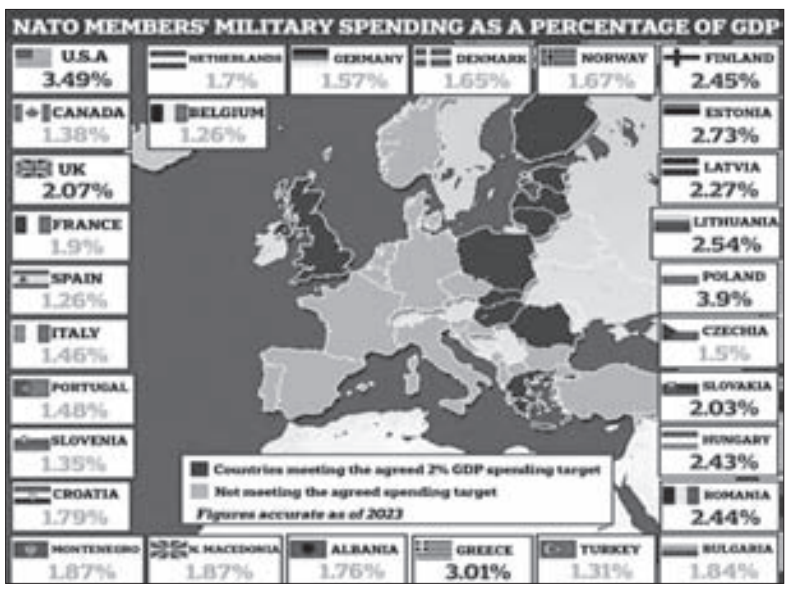
그래픽에는 나토 회원국들의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PD) 대비 방위비 지출 비중이 명시돼 있다. 31개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 기준으로 삼는 연간 GDP 대비 2%를 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구분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그래픽에 따르면 미국(3.49%)과 폴란드(3.9%), 그리스(3.01%), 에스토니아(2.73%), 리투아니아(2.54%), 핀란드(2.45%) 등 11개국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

반면 스페인과 벨기에(각 1.26%), 튀르키예(1.31%), 슬로베니아(1.35%), 캐나다(1.38%), 이탈리아(1.46%), 포르투갈(1.48%) 등18개국은 기준에 미달한다. 그래픽에서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빠져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 유세에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발언은 나토 회원국들의 비판과 반발을 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1기 때의 동맹 경시 기조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전 세계 동맹국에서 나오고 있다.



갈곳도 없이 피란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이미 아수라장

이스라엘군이 대대적 공세를 퍼부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갈 곳 잃은 주민의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라파는 이미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였던 만큼 이곳을 벗어나도 마땅한 행선지가 없는 탓에 주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라파에 머물던 여성 안와르 알 라이(48)는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지난 일주일 동안 공포 속에 살았다"며 "안전한 피란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편과 두 딸을 둔 라이는 아수라장이 된 라파를 벗어나 머물 곳을 찾기 위해 가자지구 내 모든 지인에게 연락해 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남성 샤디 아사드(32)는 공습으로 터전을 잃은 뒤 텐트라도 구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는 라파를 떠나 가자지구 중부 도시 데이르 알 발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텐트가 적어도 하나는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쟁으로 현지 물가가 치솟으면서 현재 텐트 하나당 최대 1천 달러를 줘야 한다고 WP는 전했다. 음식과 물 등 생존에 필요한 자원도 부족해지면서 주민 고통은 더 악화하고 있다.

식량난에 시달리는 라파 주민들

앞서 이스라엘군은 12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가자지구 피란민이 밀집한 라파에 공습을 가했다. 당시 공격으로 최소 67명이 숨졌다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집계했다. 모스크를 비롯한 건물도 다수 파괴돼 방대한 면적이 건물 잔해로 뒤덮였다.

이집트와 맞닿은 라파는 국제사회가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주요 관문이자 전쟁을 피해 남부로 내려온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몰려있는 곳이다. 가자지구 인구 230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0만명가량이 이곳에 피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파는 그간 전쟁의 포화를 대부분 피해 갔지만, 이스라엘이 결국 공습을 감행하면서 많은 주민은 또 터전을 잃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라파가 더 본격적인 전쟁터로 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집트 당국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서쪽 해안을 따라 대규모 텐트촌을 조성한 뒤 민간인을 이곳으로 대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군이 라파에서 추가 군사 작전을 수행할 것임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텍사스 병원 응급실에 차량 돌진해 1명 사망

13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병원 응급실에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최소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텍사스 오스틴-트래비스 카운티 구급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오스틴의 세인트 데이비스 노스 오스틴 메디컬 센터 병원의 응급실에 차 한 대가 충돌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경찰은 이 사고로 최소한 한 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

이 밖에도 1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차량 운전자도 부상자 중 한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당국은 이번 사고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세인트 데이비스 노스 오스틴 메디컬 센터 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441병상 규모로, 산모·신생아 치료, 다른 부인과 치료, 심장·뇌 수술, 로봇 수술 등을 하는 종합병원이라고 AP는 전했다.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Inc
NMLS #201332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FEB. 15th - FEB. 22nd, 2024

TONGTONGBAY Frozen Salted Mackerel Fillet
통통배 the 맛있는 고등어
WILD CAUGHT/LIMIT 5 (13 OZ X 2 PACKS/PKG)

$7.99

BUY 1 + GET 1 FREE
한 팩 가격으로 한 팩이 더!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개신교 소수 종교로 …"10년 후 전체 인구 중 12%"

목회데이터연구소 보고서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각종 통계 지표 등을 통해 이미 교계에 경종을 울린 지 오래다. 더 심각한 건 교계는 이러한 추세를 목도만 할 뿐이다. 이러한 속도라면 개신교 역시 극소수를 위한 종교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한국 기독교의 모판으로 여겨지는 미주 한인 교계 역시 크게 다를 바 없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난 16일 '2023 한국인의 종교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 한국 내 개신교인은 전체 인구 중 12%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교회 내 20~30대가 점점 귀해지는 시대다. 무종교인의 인구가 크게 늘었고 개신교는 10년 후 소수 종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진은 미주지역 한 한인교회의 세대별 연합 예배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 포토]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심각
미주 한인 교계도 마찬가지

무종교인과의 격차 더 커져
종교인의 노령화 추세 뚜렷

본래 한국은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많던 사회였다.

이는 2017년(무종교인 53.4%·종교인 46.6%) 조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역전됐다.6년 만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내 개신교, 가톨릭, 불교 등 19세 이상 종교인은 37.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무종교인은 최고치인 62.9%로 조사됐다. 두 집단 간 격차는 무려 25%p 이상인 셈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당시 격차(6.8%p)보다 더욱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30대의 경우 종교 인구는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연령별 종교인 분포 변화를 살펴봤다.

20대의 경우 지난 2017년 당시 종교인 비율은 31%였다. 반면 2023년에는 16%로 급감했다. 30대 역시(이하 2017년 38%·2023년 19%) 상황은 심각하다. 20~30대의 종교인은 해당 세대에서 5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종교인의 노령화 추세는 점점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7년과 2023년의 무종교인과 종교인 간 격차는 40대(15%p), 50대(12%p), 60세 이상(3%p)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좁혀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UCLA 유헌성 연구원(사회학)은 "미국도 별반 다를 바 없지만,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됐고 종교라는 집단적 제도권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와 달리 종교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약해진 것도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와 불교 인구의 하락세가 컸다. 반면, 가톨릭 인구는 소폭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먼저 개신교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16.6%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20.3%)과 비교하면 약 4%p 줄었다. 불교 인구는 2017년 당시 19.6%였으나, 현재 12.4%로 감소했다. 가톨릭 인구는 7.8%로 2017년(6.4%)에 비해 소폭 늘었다.

전체적으로 종교인은 소수에 속하지만 그나마 개신교에는 희망적인 부분이 한가지 있다. 20~30대 종교인만 따로 보면 개신교인의 비율이 그나마 높다. 젊은 층은 사찰, 성당보다는 '교회'에 소속된 셈이다.

20대 전체 인구 중 무종교인 비율은 85%다. 이어 개신교인(9%)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불교인(4%), 가톨릭(2%) 등의 순이다. 30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무종교인(81%)을 제외하면 개신교인(11%), 불교인(4%), 가톨릭(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동안 대학 캠퍼스 사역을 담당했던 필립 이 목사는 "기존의 기독교 울타리에서 자라난 젊은 층은 교회에 실망해 기독교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많다"며 "하지만 미국에서도 오히려 정신적 빈곤 등을 느끼는 젊은 비신자들이 늘면서 영적인 것을 찾아 교회 등으로 오는 사례 역시 많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다. 젊은 층이 종교를 떠나는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20~40대 개신교인은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19~29세 사이 개신교인을 보면 2023년 기준으로 9%다. 이는 2012년(19%)과 비교했을 때 10%p 줄었다. 30~49세(2012년 21%→2023년 11%), 40~49세(26%→14%) 등 모두 10%p 이상 감소했다.

'가나안 성도(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을 일컫는 신조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개신교인 4명 중 1명(26.6%)은 가나안 성도다. 이는 지난 2012년(10.5%)과 비교했을 때 무려 16%p가량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젊은 층 개신교인 중 가나안 성도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9~29세(45%), 30~39세(35%) 등 가나안 성도는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측은 "개신교인 성인의 가나안 성도 비율은 27%였는데, 특히 청소년의 경우 36%가 가나안 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이 성인이 된다면 앞으로 개신교 내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에 대해서는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 개신교인은 전체 인구의 12%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지난 통계를 바탕으로 추세의 기울기를 예측한 결과 향후 10년 뒤에 개신교인 비율은 12.6%로 떨어졌다"며 "가나안 성도의 비율 역시 37.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교회 출석자 비율 급감 현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교회 출석자를 살펴보니 현재(2023년 기준) 20대(6%), 30대(9%)의 교회 출석 비율은 모두 10% 미만이다. 이는 2017년(20대 17%·30대 17%)과 비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인들이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5451명(19세 이상 4751명·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지난 1월 3일까지 진행됐다. 신뢰도는 19세 이상(오차범위 ±1.4%), 청소년(± 3.7%) 등 모두 95%다.

장열 기자

종교와 트렌드

교회도 '멀티제너레이션' 준비해야

최근에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MZ, 알파세대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로 인해 직장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고 제품과 서비스를 팔기 위해 많은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교회에서도 MZ교인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예전에는 3세대가 한 시대를 살아가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초고령화와 평균수명연장으로 인해서 '멀티제너레이션 (Multi-generation)'이 같이 사는 시대가 온 것이다.

최근 출간된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인구충격과 맞바꿀 새로운 부의 공식(원제 The Perennials)'의 저자 마우로 기옌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기존의 '놀이-공부-일-은퇴'의 '순차적 인생 모형'은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퍼레니얼(perennial)'은 원래 '다년생 식물'을 뜻하는 단어지만, 저자는 이를 '자신이 속한 세대의 생활 방식에 따르지 않고 세대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나이와 세대 구분이 없어지는 '퍼레니얼(perennial)' 시대가 오면서 자신의 가치와 속성을 지닌 개인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물리적인 나이보다는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규정되어 질 것이다.

퍼레니얼은 나이와 세대에 기반을 둔 기존의 가정을 뒤엎는다는 점에서 생산, 소비, 고용, 투자를 비롯한 경제와 비즈니스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한다.

교회에서도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시니어 또는 실버가 아닌 시대이다. 나이 들어도 꿈과 비전, 열정이 있으면 청년이라고 할 수 있고, 젊어도 꿈과 비전이 없으면 노인일 수도 있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물리적 나이만 가지고 시니어 대접만 하는 게 의미가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멀티 제너레이션 노동력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BMW는 다섯 세대에 걸친 팀이 더 빠르게 작업하고 더 적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다세대 팀을 실제 작업 환경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영화 '인턴'에서도 나이든 인턴이 젊은 CEO의 고문역할과 정신적 멘토링을 해주는 장면도 떠오른다. 교회에서도 다양한 나이가 섞인 그룹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나이든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트렌드를 배울 수 있다.

이제는 알파 세대(2013년 이후 출생), Z세대(1995-2012년생), 밀레니얼 세대(1980-1994년생)뿐만 아니라 X세대(1965-1979년생), 베이비붐세대(1946-1964년생), 침묵의 세대(1925-1945년생)까지 공존하는 시대이다.

이제는 최소 6세대 이상이 같이 사는 시대가 됐다. 교회에서도 이제는 3대가 아닌 멀티 제너레이션과 퍼레니얼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종찬 J&B 푸드 컨설팅 대표

ⓙ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자격 :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 infokdd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지치고 힘든 위장을 위하여 위에 좋은 성분만 가득 담았습니다!

청정지역 오키나와 미야코 섬에 있는 우메켄 직영농장에서 재배한 제도아리(자색강황)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었으며 위장 건강에 탁월한 발효 양배추, 여주, 생강 및 5가지 약초가 함유되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아리로 당신의 위장이 튼튼해지면 당신의 하루도 튼튼해집니다! *

위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정)

오키나와 제도아리로 위장은 건강하리!*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배앓이와 위장 경련이 심한 분
- 습관적 구토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
- 소화 불량과 위통으로 고생하는 분
- 위장장애로 트림, 구취가 심한 분
- 쉽게 식중독에 잘 걸리는 분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빠르고 시원하게~ 우메켄 소화효소!

쉽게 체하고 속이 늘 더부룩하며
위산과다, 식후 무기력증이 심한 것은
몸속에 부족한 소화효소!

위, 소화를 위한 효소 총집합
우메켄 소화효소(과립)

소화효소 $10 할인 ~2/29 까지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구입처
■ANNANDALE •웰빙모아 (703)256·5500 •건강마을 (703)354·1515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CENTREVILLE •웰빙모아 (703)830·7755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ELLICOTT CITY •롯데플라자 (410)750·9656 •모드니에 (410)615·6167 •힐링타운(443)878·9020 ■CATONSVILLE •BESETO (410)303·5530 ■GAITHERSBURG •GREEN COSMETIC (301)926·6307

무너진 '원팀' … 요르단전 참패, 불화가 불렀다

"손, 식사 때 탁구치던 후배들 제지 말 안 듣자 충돌, 손가락 탈구돼"
지켜본 클린스만, 소란 끝난 뒤 중재

지난 7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전에서 한 수 아래 전력의 요르단에 0-2로 완패한 한국축구대표팀.

충격적인 패배 뒤엔 위르겐 클린스만(60·독일) 감독의 '무색무취' 전술 외에도 선수들 간 심각한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강전 하루 전 주장 손흥민(32·토트넘)과 핵심 공격수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 등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국 대중지 선은 14일(한국시간) "손흥민이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료들과 다투던 중 손가락이 탈구(dislocated)되는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손흥민이 후배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오른손 중지와 검지를 다친 사실을 인정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손흥민이 이강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멱살을 잡았다. 동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뿌리치다 다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축구 4강전에 출전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손가락에 흰색 테이프를 감고 뛰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전날 손흥민과 일부 어린 선수 사이에 마찰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강인을 비롯해 설영우(26·울산)·정우영(25·슈투트가르트) 등 대표팀 내 젊은 선수들이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친 뒤 식당 옆 공간에서 탁구를 즐긴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후 고참급 선수들이 식사하는 도중에 탁구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자 주장 손흥민이 "그만하라"며 제지했지만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다. 화가 난 손흥민이 이강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자 이강인이 주먹을 휘두르며 응수했다.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선수들이 둘을 떼어 놓는 과정에서 손흥민이 다쳤다.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본 클린스만 감독이 소란이 끝난 뒤 중재해 선수들이 화해했지만, 감정적 앙금은 남았다. 이후 일부 고참급 멤버들이 이후 감독을 찾아가 "선배에게 덤빈 이강인을 요르단전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세 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손흥민과 함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한국은 최악의 졸전 끝에 요르단에 참패했다.

손흥민은 요르단전에 오른손 중지와 검지에 흰색 테이프를 감고 뛰었다. 경기 후 "내가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감독님께서 저를 더는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강인을 변함없이 선발로 기용한 클린스만 감독의 결정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오늘 클린스만 경질 여부 결정=** 손흥민-이강인 '충돌 사태'가 불거지며 가뜩이나 지도력 부족으로 경질 위기에 몰린 클린스만 감독의 선수단 관리 능력 또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클린스만 감독은 그동안 '전술적 능력이 다소 부족해도 선수들과 소통을 잘하는 매니저형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해프닝을 통해 팀 관리 역량도 낙제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15일 전력강화위원회를 연다.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한 클린스만 감독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정몽규 회장 등 축구협회 집행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참고해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부를 포함한 축구대표팀 향후 운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피주영 기자**

퍼즐 딱 맞네…'이강인과 멱살' 손흥민과 클린스만 발언 재조명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요르단과 준결승 전날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등 젊은 선수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14일 알려지면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요르단전 패배 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이 주목받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표 선수들이 어깨동무하고 둥그렇게 모여서 합심을 다짐하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팀이 돼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요르단에 0-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뒤 올린 글이다.

참패로 대회를 마쳤던 당시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게시물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요르단과 준결승을 하루 앞두고 손흥민과 이강인이 멱살잡이를 했고 고참선수들이 이강인의 출전 제외를 요청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팀 내 갈등 상황에 대한 클린스만 감독의 언급으로 해석되고 있다.

요르단전 패배 직후 인터뷰에서 클리스만 감독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요르단이 좋은 경기를 펼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던 손흥민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요르단전 패배후 손흥민은 클린스만 감독 체제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믿는지 묻는 말에 "내가 앞으로 대표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손흥민은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시에는 패배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나온 일반적 발언으로 여겨졌지만 당시 팀 내 갈등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손흥민은 손가락이 탈구돼 테이핑을 하고 요르단과 경기를 치렀다.

손흥민은 아울러 "대표팀에서 1년 정도 하셨는데, 한국에 돌아가셔서 더 많은 분석을 하실 거다. 더 단단한 팀을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고 클린스만 감독을 두둔했다. 또 "내가 너무 부족했고, 팀을 이끄는 데 있어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던 대회였다. 많은 선수의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성적을 가져오지 못해서 너무나도 선수들한테 미안하고 또 저희 팬분들한테 또 대한민국 국민분들한테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고 자책했다.

이강인은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감독님, 코칭스태프분들께 감사하다"며 "지금 당장은 한 선수, 감독님, 그런 분들을 질타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대표팀, 우리나라가 축구 측면에서 더 발전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지 잘 생각해보고 노력해야 한다"며 "나도 이번 대회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아직 부족하다. 다시 되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요르단과 경기에서 한국은 90분 동안 단 한개의 유효슈팅도 때리지 못하고 완패했다. 이 때문에 경기 하루 전날 선수단에게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음에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요르단전에 임하면서 조직력에 문제가 가중된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이해준 기자**

이강인, 대표팀 불화 사과
"형들 도와 더 좋은 선수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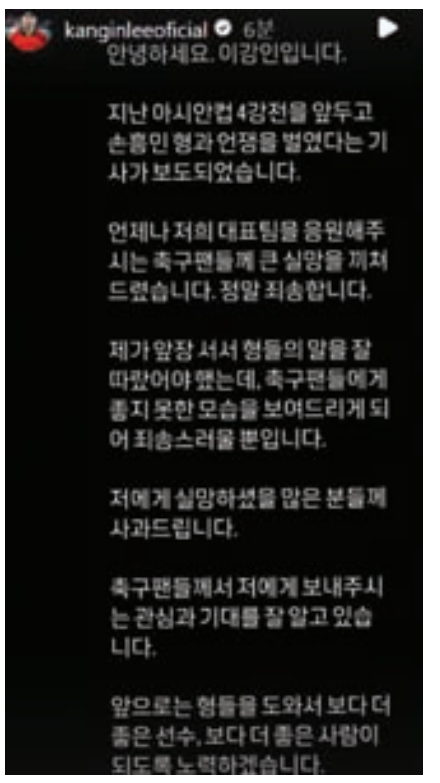
한국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을 앞두고 손흥민 등 선배 선수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논란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강인은 14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사진=이강인 인스타그램 캡처)를 통해 "지난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며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축구 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강인은 "축구 팬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보다 더 좋은 선수, 보다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더선은 13일(현지시간) "손흥민이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저녁식사 자리에서 동료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손흥민이 후배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오른손 중지와 검지가 탈구됐다고 확인했다.



이 일로 일부 고참급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요르단전에서 이강인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J&B ESSAY CONSULTING, LLC
"THE FIRST OR NOTHING"
Tysons Office: 8000 Towers Crescent Drive, Fl. 13, Tysons, VA 22182
Phone: 703-278-2773
Kakao Channel: 제이앤비에세이컨설팅
Email: pct@jbessay.com
Website: www.jbessay.com

GREEN — Essays for Kids (Grades 5-8)
VIOLET — Boarding Admissions (Grade 8)
BLUE — Essay Contests (Grades 8-11)
ORANGE — Journals (Grades 9-11)
BROWN — HYPS Portfolios (Grades 10-11)
RED — College Admissions (Grade 12)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중앙일보건물2층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뜨레쥬르 제과점 옆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인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 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UNITED AIR CHINA AIR CANAD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끝!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판매 $45
유럽유심 판매 $50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채용공고 버스투어 가이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2024년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적극 추천하는 여행!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1차 출발 4/16-4/26
2차 출발 6/18-6/28 (영어가이드)
3차 출발 9/17-9/27
4차 출발 10/15-10/25
5차 출발 10/22-11/1 (단풍특선)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34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투어
2.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3.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선 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4. 고향냄새 솔솔나는 먹거리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1차 노옵션 다낭 3박 + 고국 7박 — 5/18-5/29 $3090+항공
2차 일본 3박 + 고국 7박 — 5/21-6/1 $3590+항공
3차 노옵션 다낭 3박 + 고국 7박 — 11/9-11/20 $3090+항공
4차 일본 3박 + 고국 7박 — 11/12-11/23 $3590+항공

때론 부담없이
클래식 고국일주
10박 11일
$2290+항공

1차 출발 4/30-5/10
2차 출발 7/9-7/19
3차 출발 10/1-10/11

특전
1. 4성급 이상 호텔
2. 대형버스 투어
3. 고향냄새 솔솔나는 먹거리
*옵션 불포함

2024년 13회 자신있게 출발합니다!!!

3박4일 서남권 $899+항공 매주 일요일
4박5일 동해권 $999+항공 매주 금요일
5박6일 서남+제주 $1499+항공 매주 일요일

일본 여행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사카 $999+항공
8박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TMCI Total Medicare Connection Institute
고국건강검진
현대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세브란스 (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 (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 (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 3박 5일 $590+항공 — 출발: 격주 목요일 — 왓포사원, 콜로세움쇼, 파타야 야시장,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래킹, 악어농장 백만년바위공원, 태국특산물
푸켓 — 3박 5일 $599+항공 — 출발: 격주 수요일 — 팡아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쇼, 파동 야시장 피피섬, 왓찰롱 사원 코끼리 트래킹
하노이/하롱베이 — 3박 5일 $590+항공 — 출발: 격주 수요일 — 하노이, 엔뜨,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영묘 생활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다낭 — 3박 5일 $499+항공 — 출발: 격주 일요일 —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본강 일본내원교, 껀가사당, 풍흥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에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성당
대만 — 3박 4일 $690+항공 — 출발: 격주 목요일 —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허제 야시장, 서문정거리, 태로산협곡, 화련 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야류해양 국립공원, 쟈우펀거리
싱가폴 — 3박 5일 $790+항공 — 출발: 격주 수요일 —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 베이, 리버원더스, 핸더스 웨이 브릿지, 하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머라이언공원, 차이나타운, 센토사섬, 실로소비티

겨울골프 & 가족여행
캔쿤 4박5일 $1,590+항공 부터 *All Inclusive호텔
도미니카 4박5일 $1,390+항공 부터 *All Inclusive호텔
올랜도 4박5일 $1,290+항공 부터 *호텔 혹은 타운하우스 가능
코스타리카 4박5일 $1,199+항공 부터 *골프 안치는날 관광 가능

탑여행사 미동부관광
미동부 월출발 —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섬/몬트리올/퀘백 플래츠버그/뉴욕 — 5박 6일 $1350
미동부 베스트셀러 뉴욕.브루클린 나이아가라 월출발 — 3박 4일 $899
핵심적인 동부 명소만 쏙쏙 뉴욕 나이아가라 월출발 — 2박 3일 $650
가슴 벅차오르는 두글자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마운트버논 & 루레이동굴 $125, 알렉산드리아 $150, 필라델피아 $150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티켓구입 가능

탑여행사 미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일출발 — 서부지역의 주요 도시들과 3대캐년까지 알찬 여행 — 8박 9일 $145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록키 캘거리 출발 3박4일 $850+항공
옐로나이프 3박+록키 3박 $1690+항공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3/13~3/19 남 프랑스 6박7일 $2890+항공
3/16~3/28 남미 일주 1차(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190+항공 마감
3/16~3/23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8일 $2990+항공
3/22~3/28 페루 일주 6박7일 $2890+항공
3/25~3/31 봄방학특선 이태리일주 6박7일 $2390+항공
3/29~4/10 남미 일주 2차(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190+항공
4/16~4/26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4/22~5/02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4/22~5/05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4/22~4/30 정통 동유럽 8박9일 $3290+항공
4/24~5/0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4/29~5/05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4/30~5/10 클래식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290+항공
5/03~5/12 바르셀로나&지중해 크루즈 9박10일 $43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5/07~5/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3990+항공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6/25~7/08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6/28~7/03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7/09~7/19 클래식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인사이드 $1990(항공포함), 발코니 $2590(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9/17~9/27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9/17~9/30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9/17~9/25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24~9/30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8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1~10/11 클래식 고국일주 3차 10박11일 $22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10일 $ 1190(인사이드)
10/22~10/31 터키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9박 10일 요금문의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요금문의
11/12~11/24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 14일(시내산) $5190+항공
11/12~11/20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319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고금리 위기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9조4000억 공급

당정, 5% 넘는 대출금리 2%P 인하
신산업 전환에도 56조3000억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해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20조원 규모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지원금도 합한 수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기업 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고금리 부담도 커지자 민·당·정이 힘을 합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잔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5.36%로 고금리 행진을 이어갔다.

당정은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정상화와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해 19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로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당정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엔 3조원 규모의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산금리를 면제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당정은 신산업 전환 지원에 총 56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총 20조원+알파(α) 규모 지원 ▶올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조성을 통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반도체, 2차 전지 등 초격차 주력 사업에 15조원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중견기업에는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신사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5대 은행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에는 2조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원한다. 또한 '중소→중견' 성장 기업에는 맞춤형 보증 2조원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 등을 위해선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산업 진출 및 산업 확장 등에 나서는 중소기업에 5조원 규모의 우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기술기반 자금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한 16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액은 약 327억 달러(약 43조6800억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을 언급한 뒤 "이제는 정부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혜택)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같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투자하신 외국인 투자기업에 정부가 해드려야 하는 반대급부"라고 했다.

전민구 기자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법카 식사접대 혐의"

〈이재명 부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이날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이날 2심 법원이 배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공범 혐의로 수사 중이던 김혜경씨를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부인 3명과 자신의 수행원 3명 등의 식사대금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대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배씨만 먼저 기소했다. 이에 공범 혐의를 받는 김씨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배씨 재판 확정 때까지 정지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관련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배씨와 김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부부와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전직 경기도 별정직 7급 공무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2022년 2월 "배씨의 지시에 따라 초밥·샌드위치·샴푸·과일 등을 구매해 이 대표 부부에게 제공했다"고 의혹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배씨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수사 중이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 남편인 이 대표가 이러한 정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이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김씨의 성남시와 시의회 상대 로비 행적을 인정한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의 부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의장에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감안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2012년 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뒤 탈당하고,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이 반대한 공사 설립 조례안을 같은 해 12월 가결되게 한 점, 이후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의 재선 선거를 도운 점 등이 청탁을 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이 현실화되자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 급여 명목으로 8000만원도 지급 받았는데, 법원은 이 또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7건이다. 김씨는 이날 판결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모란·손성배 기자

전공의 첫 사직투쟁…정부 "연쇄사직 땐 집단행동 간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 총파업 움직임이 주춤한 가운데, 전공의 중 막내인 인턴에서 첫 사직 사례가 나왔다. 전공의 개별 사직 행렬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연쇄 사직 역시 집단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유튜브 채널 '공공튜브_메디톡'에는 '결의'라는 제목의 1분 27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자신을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될 예정이었다고 소개한 홍재우 대전성모병원 인턴은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醫業)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잠시 내려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 첫 개별 사직 사례다. 홍 인턴은 "(의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만 치부하지 말아달라. 영상을 보고 집단행동을 선도한다고 생각하면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며 의사 면허 번호도 공개했다.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이 영상은 조회 수 5만5000회(14일 오후 2시 기준)를 넘겼다. 대전성모병원 등 가톨릭대학교 부속 8개 병원을 산하로 둔 가톨릭중앙의료원(CNC)은 인턴 대표가 나서 전체 225명 인턴을 대상으로 사직 의사를 취합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17일 첫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안 등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황수연·채혜선 기자

청와대 관람객 500만 돌파 문화체육관광부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0일 청와대 누적 관람객이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5월 10일 청와대를 국민에 개방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14일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관광객 모습. [연합뉴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HOT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WARDED

Porch HomeAdvice

LENNOX Carrier TRANE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미국 S&P500처럼 … '밸류업 우등생' 모아 지수·ETF 만든다

정부, 이달 중 밸류업 대책 발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포함 검토
국민연금 등 큰손에도 관심 유도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달 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14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벌어들인 이익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상장사가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환원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수익률(ROE) 등 주요 투자 지표를 상장사·시가총액·업종별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는 매년 기업가치 개선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공표하는 게 골자다. 대상은 코스피 상장사는 물론 코스닥 기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이 검토 중이다. 사실상 상장사의 '기업가치' 성적표가 공개되는 셈이다. 기업은 명단 공개에 따른 부담(네이밍 앤 셰이밍, 회사 이름을 거론해 망신 주기)이 커질 수 있다.

이남우(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10대 그룹 한 곳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예상 내용과 대응 전략을 묻는 연락을 받았다"며 "기업도 변화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가치 개선이 뛰어난 기업엔 인센티브를 준다.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기업가치가 우수한 우등생(상장사)을 모은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가칭)를 만들고,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선보일 예정이다. 벤치마크 지수(프리미엄 지수)에 편입된 기업은 상대적으로 기관투자가 등의 자금을 받을 확률이 크다.

정부는 밸류업 새 장(場)이 열리면 촉매제 역할을 할 기업뿐 아니라 '큰손'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2018년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고객을 대신해 투자 대상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는 준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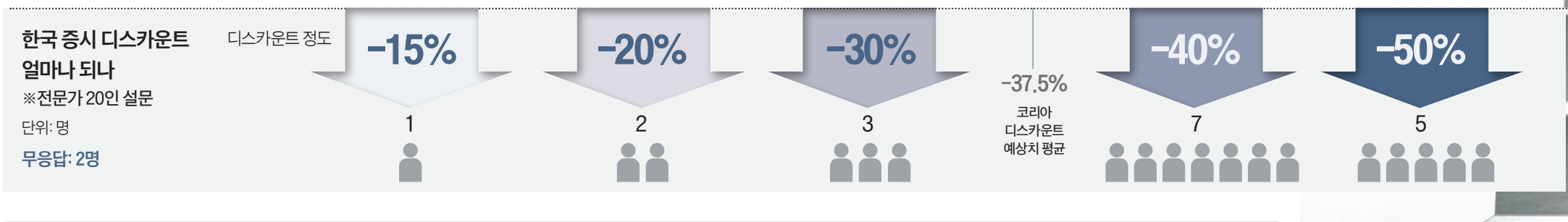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14일 기준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관투자가 220곳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관투자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가운데 중장기 밸류업을 반영하는 방식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관투자가가 투자 회사를 점검할 때 주주환원 등 기업가치 개선 노력도 중요한 항목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연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 등 정책을 쏟아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2년간 유예했다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 카드를 꺼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확대한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또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회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이 담긴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면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업 밸류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했으나, 금투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역행하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염지현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설문조사 참여자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정남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 아시아 · 태평양 매니징 디렉터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상무)
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
서준식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성윤 달튼인베스트먼트 이사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가나다순



윤 대통령, 독일·덴마크 순방 나흘 앞 연기 … 외교가 "이례적"

여권 "여러 요인 고려…대신 호남행"
명품백·의사집단행동 등 영향 분석

일 언론 "기시다 내달 방한 검토"
한·일 정부 "현재 추진사항 없다"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던 독일과 덴마크 순방 일정을 연기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호남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14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초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하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을 조율해 왔지만, 이를 순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연기는 취임 후 처음이다.

순방 연기설은 지난달 말부터 정부 안팎에서 공공연히 나왔다.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만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의 대담에 대한 여론의 추이, 의대 인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파업 가능성, 북한의 연이은 위협 및 도발 우려 등 다양한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순방 동행 여부도 관심사였다.

김 여사는 최근 외부 활동을 일절 하지 않고 있지만, 통상 국빈 방문에는 배우자가 동행하기 때문에 김 여사가 가지 않는 것도 또 다른 뒷말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마지막까지 고심하던 윤 대통령이 순방으로 얻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각국 정상의 순방 일정 변경이 드문 일은 아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23년 만의 독일 국빈 방문을 취소했다. 이어 10월엔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한국 국빈 방문을 연기했다.

우리나라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0년 KBS 제작 거부 사태로 미주 지역 순방 일정을 축소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유럽 순방을 취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여파로 멕시코 순방을 연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미국 순방 일정을 연기했다.

그럼에도 국빈 방문을 불과 며칠 앞두고 연기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외교적 결례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실은 "독일·덴마크 측과 조율을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도 양국을 상대로 각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상 방문은 무산됐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상호 교류하는 방안도 열려 있다.

이날 여권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다음 주 독일·덴마크 순방을 연기하는 대신 호남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도 '호남을 첨단산업단지와 문화복합단지가 어우러지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지역으로 호남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광주를 예로 들며 "차세대 자동차 연구소, AI(인공지능) 연구원 등의 건립을 검토하고 있고 문화 관련 국립 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하순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14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 보도에 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도 정례 회견에서 총리의 방한 계획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현일훈·박현주 기자, 도쿄=이영희 특파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 장 강 동 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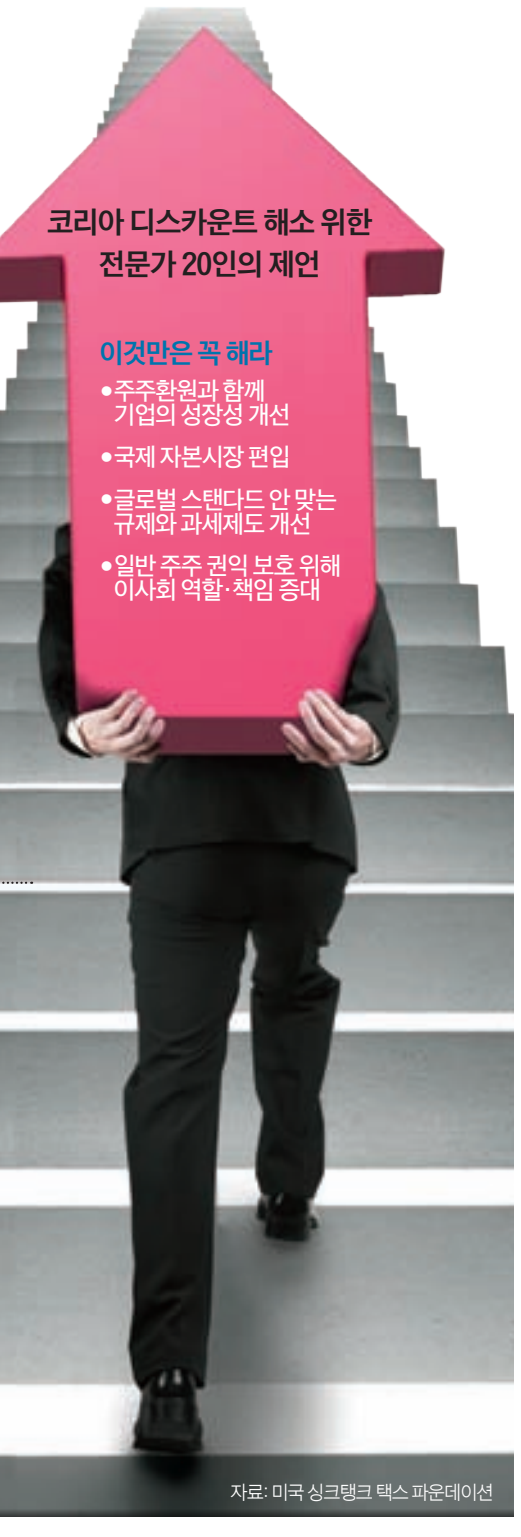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전쟁 난 이스라엘, 저평가 없는데…오락가락 한국, 변동성 커"

〈주식시장〉



자료: 미국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

'큰손' 투자자문가 토포 TCK회장

갑자기 정부 개입, 시장 예측 어려워
지정학 요인 북한, 저평가 핵심 아냐

좁은 국토 면적과 부족한 자원, 높은 교육열과 발달한 첨단 기술….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이다. 여기에 북한(한국)과 중동(팔레스타인·레바논 등)을 이웃에 둔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까지 닮았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다섯 달째 전쟁 중이다.

이스라엘 출신으로 글로벌 '큰손' 투자자의 자문가로 유명한 오하드 토포(사진) TCK인베스트먼트 회장은 1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비슷한 환경이지만 주식시장의 저평가,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스라엘 증시(TA35)는 지난해 10월 전쟁이 발발한 직후 14.3%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완전히 회복했다.

토포 회장은 한국 증시를 "글로벌 투자자에게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시장"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까지 겹쳐 본래 가치보다 저평가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과 맞닿은 지정학적 요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핵심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편하게 하는 요소로 ▶정부의 갑작스럽고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정책 변동성 ▶주요 사업의 수익성을 늘리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기업의 의사결정 ▶기업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꼽았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선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정부가 민간에 덜 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투자자가 회사를 선택할 때 원하는 요건부터 채워야 한다"며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통해 배당할 수 있어야 하고, 회사의 경영진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과세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모든 자산 계층에 걸쳐 국내·해외 주식을 불문하고 통일된, 단순한 과세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업인이 정부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을 통해 쌓은 부(富)를 증시를 통해 더 불리고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외국인 투자가 늘고, 국내 투자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과도한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은 것과 관련해선 같은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한국과 이스라엘은 내수시장이 작고,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상속세가 없다"며 "(이스라엘과 한국처럼) 주식 투자에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나라는 더 큰 보상이 필요하고, 세금도 적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은 투자 환경을 만드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일정 부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뿐이지, 한국보다 낮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양질의 제조업과 수준 높은 대기업 등 (이스라엘이) 한국에 배울 점도 많다"고 했다.

김기환 기자

한국 조세경쟁력 14위→23위

〈2014〉 〈2023〉

"과도한 상속세, 기업들 투자 위축"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편뿐 아니라 상속세·법인세 등 한국식 '징벌적 조세 제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제 부담을 줄여 기업 수익을 늘리고 투자를 활성화해 증시를 부양해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중앙일보가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세 제도'를 꼽았다. "세금 부담 완화가 경영 목적이 되면서 주식 가치가 인위적으로 하락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적처럼 과도한 세제 부담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조세 제도는 글로벌 기준에서 한참 뒤처진다. 미국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조세 경쟁력 지수(ITCI) 순위는 2014년 14위에서 지난해 23위로 9년 새 아홉 단계나 뒷걸음질했다. 특히 상속세를 포함하는 재산세(24위→32위)와 법인세(13위→26위) 등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속세가 주가 상승 인센티브를 약화시키고 기업 투자도 위축시킨다고 보고 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쪼개기 상장, 터널링(지배주주 사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 등 다양한 사익 추구 현상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도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세제 개편에 앞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송민경 한국ESG기준원(옛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서 기업 승계는 단순히 자산을 승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담과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며 "상속세 감면 등 제도 개편이 사회적·경제적 설득력을 갖지 못한 채 오히려 부의 대물림만 보장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김정은 비자금 조직, 도박사이트 한국에 팔고 개인정보 빼갔다

국가정보원이 국내 범죄 조직에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팔고 한국인 1100여 명의 신상정보를 훔친 북한의 외화벌이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도박 범죄의 배후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덜미가 잡힌 북한 외화벌이 조직은 '경흥정보기술교류사'(이하 경흥)다. 경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자금을 조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이다. 김광명 단장 아래 정류성·전권욱 등 15명의 조직원이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중국동포인 대북 사업가 소유의 단둥시 소재 의류공장(금봉황 복식유한공사)의 기숙사에서 머물며 활동했다고 한다. 경흥은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에 한 건당 5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트를 유지·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월 3000달러를 받기도 했다. 사이트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 월 2000~5000달러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은 "매달 1인당 500달러씩을 평양에 상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이다. 이에 경흥 조직원들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하거나 중국인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해 중국인 개발자로 위장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이렇게 신분을 세탁한 뒤 SNS나 프리랜서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감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과 연계된 국내 범죄 조직들을 추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경흥이 북한 조직이라는 점을 사실상 알면서도 거래를 이어왔다고 한다. 경흥은 또 불법 도박사이트의 유지·보수를 위해 관리자 권한을 받아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또 베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오토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를 심어 회원 정보를 탈취하기도 했다. 경흥이 성명·연락처·계좌번호 등을 털어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판매까지 시도한 한국인 개인정보는 1100건이 넘는다.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 올 5번째=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4일 오전 9시쯤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다. 군 소식통은 "순항미사일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타격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동일 무기 체계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발사하는 건 북한이 뭔가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조만간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을 보게 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박현주 기자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2023 A Re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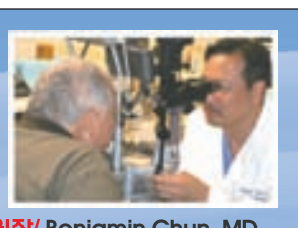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져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우리말 바루기

'자잘못'은 가릴 수 없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자잘못'이다. 억울한 일이 생겨 다른 이들에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가려 달라고 요구할 때 많이 쓰인다. "자잘못을 가려 주세요" "자잘못을 따져 주세요" 등처럼 사용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잘잘못'이라 해야 한다.

'잘잘못'을 '자잘못'이라 틀리게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말에 'ㄹ'을 탈락시켜 발음하기 편하게 만든 단어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이다.

'달달이'를 '다달이', '솔나무'를 '소나무', '불나비'를 '부나비', '말소'를 '마소'라고 하는 것 등이 이러한 예다. 이들처럼 '잘잘못'도 '자잘못'으로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잘잘못'은 'ㄹ'을 탈락시키지 않는 단어이므로 '자잘못'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잘잘못을 가려 주세요" "잘잘못을 따져 주세요" 등처럼 '잘잘못'이라고 해야 한다. '잘잘못'은 주로 '가리다'와 '따지다'와 결합해 '잘잘못을 가리다' '잘잘못을 따지다' 등의 형태로 사용된다.

'잘잘못'이 '잘(함)'+'잘못'의 구조로, 잘함과 잘못함이 결합된 단어라는 것을 떠올리면 '잘잘못'이 바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유흥주 칼럼

2024년도 남북 관계 안보전망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평양에서 북한 조선노동당은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번 당중앙위 전원회의 연설에서 '전쟁 준비' 등의 호전적 표현을 쏟아내어 한반도 위기를 상승시키고, 남북관계를 적대국가관계로 공식화하였다.

2023년 연말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2024년 북한이 대남정책에 집중하고 이를 급속히 진전시키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 당중앙위 제8기 제 9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의 결과를 통해 김정은 시기 대남정책 변화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 북한의 대남 및 대외정책 전반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외교 원칙으로 존엄 수호, 국익 제고, 국익 수호,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 등을 천명했고, 반제·자주적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국제적 규모에서의 반제 공동행동과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남조선놈들, 졸개, 충견, 괴뢰 등 험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 정책을 고수하는 대한민국것들과의 통일은 불가하며, 한반도에는 교전 중인 두 적대국이 존재한다"고 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강 대 강, 핵에는 핵'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미국놈들, '미군부깡패' 등의 적대적 용어는 1회씩만 사용하고 20여 회에 걸쳐 '미국'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미국에 대해 선을 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본에게 정중한 서신을 보낸 것은 통미봉남(通美封南)과 통일봉남(通日封南)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즉, 미일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면서도 2024년에 남북이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등 전쟁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은 한미동맹 조약에 따라 아무런 심리적·도덕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핵 응징을 가할 것이다.

재래 전쟁을 도발 한다면 '전시작전통제권 합의'에 따라 한미 군은 단일 지휘체제 하에서, 매년 연습해온 작전계획 5015호에 따라 방어 및 반격에 나설 것이다.

이동 발사대, 군항, 공군기지, 군부대, 발전소, 댐 등 전략 목표들을 초토화할 것이다.

북한의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벙크버스터나 지진 발생 폭탄들도 사용할 것이다. 그 사이에 유엔군 사령부는 일 본내 7개 후방기지들을 이용하여 6·25 참전국들의 군대를 재무장시켜 한반도로 전개 시킬 것이다. 이 계획을 재확인한 것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17개 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였다.

한국 여론 조사에서는 2024년도 북한의 도발 강도에 대해서는 46.6%가 작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40.2%, 도발 강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9.8%였다.

2024년도 남북관계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과 작년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했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9%로 '변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 44. 1%보다 약간 높았다.

2030세대는 2024년 남북관계가 '변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40대 이상에서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64.0% 수준으로 직전 분기 대비 2.9% 보다 감소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전쟁위협의 해소'(31.8%)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 발전'(27.7%, '민족의 동질성 회복'(15.5%), 자유와 인권 실현(11.5%), '국제적 위상 강화' (10.6%) 순으로 집계됐다.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54.1%), '중국'(31.9%), '러시아'(4.5%), '일본'(3. 7%) 순 이었다.

현재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4.6%로 '안정적'으로 평가한 44.3%보다 높았다.

세계 역사를 보면 남북한 만큼 생활방식, 경제 수준, 사상이 사뭇 다른 나라들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룬 전례는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평화 통일 신화를 열렬히 지지했고 내막을 알수 없는 인민들도 평화통일을 지지했다.

남한에서도 좌파 경향이 강한 민주당 민족주의 세력은 평화통일론을 믿고 대북 협력과 대북 지원을 지지했다. 해외 동포들에게도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영향이 없지 않았다.

북한이 지금 반통일 노선을 채택한 것은 친북한 해외 교포들 에게도 큰 실망과 반감을 주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실망은 큰 문제로 보인다.

또한 최근 북한의 정치를 지켜보면 당황스러웠다. 어느 정도 논리가 있겠지만, 이만큼 급하고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정말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독자 마당

그리운 공원 친구들

매일 새벽이면 아무 부담감 없이 서둘러 동네 공원으로 향하곤 했다. 그곳에서 느끼는 신선한 공기도 좋았지만 공원 친구들을 만난다는 즐거움도 있었다.

한인이 없어 아쉽긴 했지만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대부분은 현직에서 물러나 은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다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는 모습들이었다. 그중에는 군 장성 출신도 있었고, 미술가, 음악가 등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공원에서 만나면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항상 필요한 예의는 지키는 모습이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기본 소양이 몸에 밴 듯했다.

어느 날 조금 늦게 공원엘 갔더니 다들 돌아가고 켄과 엘렌 부부만 남아 있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웠고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엘렌이 공원을 떠나며 우리에게 "See you tomorrow(내일 만나요)" 라고 인사말을 건네자 옆에 있던 그녀의 남편 켄은 곧장 "If the Lord will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크리스천 다운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 켄의 말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공원에서의 이런 인사말이 오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켄의 말은 현실이 됐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만 것이다. "금방 괜찮아지겠지"하며 기다렸지만 팬데믹은 우리 생각보다 오래 지속됐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공원엘 가지 못했고, 이제 팬데믹은 끝났지만 새벽 공원 산책은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공원에서 헤어지면서 켄이 "If the Lord will"이라고 했던 말이 요즘도 종종 떠오르곤 한다.

이제는 그들과 만났던 행복한 기억이 머릿속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아 있다.

이영순·샌타클라리타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 MD 21228

복지사·작가 꿈꾸는 '한국의 호킹들'

14일 오후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24 특별한 졸업식, 희망의 입학식- 한국의 호킹들 축하합니다' 행사에서 입학생 대표로 희망메시지를 낭독한 권정욱씨가 웃음 짓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부모 대표로 메시지를 전한 김연준씨가 아들에게 입학증서를 전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근육 희귀질환자 '호킹의 날' 행사
13명에 대학교 입학·졸업 축하

"공공 부문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싶어요. 어릴 때 아팠던 기억이 많은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언어가 사람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중요하구나 느꼈거든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병동에서 만난 권정욱(20)씨는 병상에 앉아 확고한 꿈과 미래를 이야기했다. 권씨는 다섯 살 무렵 '폼페병'이라는 희귀난치질환을 진단받았다. 체내에 당원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 근력이 떨어지고 호흡까지 어려워지는 병이다. 또래와 같은 신체 활동이 어려웠던 권씨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기도 했지만, 공부에 흥미를 붙이면서 삶에 불빛이 켜졌다.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어가면서 공부한 끝에 지난해 고려대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했다.

이날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는 '호킹의 날' 행사가 열렸다. 루게릭병과 싸우면서도 세계적인 석학이 된 스티븐 호킹의 이름을 딴 행사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권씨와 같이 신경근육계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지만, 학업에 매진해 대학 입학 및 졸업을 앞둔 이들이 초대받는다. 올해는 병원 호흡재활센터에서 치료받아온 대학 입학생 8명과 졸업생 5명이 참석해 축하를 받았다.

권씨가 대학 입학을 축하받기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대학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입학을 코앞에 둔 지난해 2월 호흡곤란 증세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다. 기도절개 수술을 받고 치료에 집중하느라 지난 한해 휴학했고, 오는 3월 본격적인 대학생활을 시작한다.

권씨는 여전히 매일밤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2주에 한번 주사 치료제를 맞아야 한다. 이날도 행사 참석 전 검사를 받았다. 이런 현실도 그의 꿈을 흔들진 못했다. 그는 "대학에서 많은 학문을 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대된다"며 "나중에는 행정고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직자가 되어 사람들이 의사소통으로 서로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어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곱 살부터 '듀센 근이영양증'을 앓은 이태윤(19)씨도 자신이 경험한 아픔을 바탕으로 타인을 돕는 게 꿈이다. 이 질환도 갈수록 근육이 약해져 걷지 못하게 되고 자발적 호흡이 어려워지는 난치병이다. 이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휠체어 위에서 생활했다. 명지대 사회과학대 입학을 앞둔 이씨는 "장애인 복지 관련 직업을 갖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이씨 어머니 조모(50)씨는 "아들이 어디를 다닐 때 휠체어로 넘기 너무 높은 문턱 등 불편한 점을 경험하면서 사회 정책을 개선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 살 때 '척수성 근위축증'을 진단받은 김소정(24)씨는 목을 가누지 못해 거의 평생을 휠체어에 누워 생활한 경우다. 어머니 이주연(51)씨는 7개월 무렵 뒤집기를 못하는 아이를 보고 놀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로부터 "2년 내에 죽을 확률이 90%"라는 말을 들었다고 돌이켰다. 하지만 김씨는 긍정적이고 좋아하는 것 많은 아이로 자랐고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다.

작가가 되고 싶어 국문학을 전공한 김씨는 졸업 후에도 순수문학·웹소설 등을 가리지 않고 써볼 생각이다. 어머니 이씨는 "우리 딸은 좋아하는 게 많아 작년에는 야구를, 지난주에는 피겨스케이팅을 보러 갔다"며 "바라는 건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소중하게 보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10년만에 214억 손배책임 인정

용인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수요예측 실패로 과도한 세금을 지출한 데 대해 용인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며 낸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주민소송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양진수·하태한)는 14일 "용인시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 및 연구원들을 상대로 '214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그 중 42억원 9361만원은 '교통연구원도 연대해 용인시에 지급하라'고 청구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용인시에게 소송을 하라고 명하는 판결이라, 실제로 용인시가 이 전 시장 및 연구원들을 배상을 받기까지는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측 현근택 변호사는 "수요 예측을 잘못한 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1995년부터 용인시가 추진하던 사업으로, 2000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상수요 13만 9000명'이라는 예측을 토대로 2004년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2013년 개통한 이후 실제 이용객 수는 예측했던 숫자의 5~13%에 불과했고 2022년에도 284억 적자가 났다.

용인시 주민들은 2013년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그 연구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용인시의 돈을 돌려받아달라"며 용인시에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 3년간 다시 심리했다.

김정연 기자

"누구에 기대려 하지 말라" 이효리의 졸업 축사

모교 국민대 후배들 졸업식 참석
"인생 제 갈길 가면 된다" 조언

가수 이효리가 14일 서울 국민대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이효리가 1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누구에게 기대고 위안받으려 하지 말라. 그냥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생각하라"고 축사를 했다. 그는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한 인연을 잠깐씩 만날 때가 있다. 그럼 위안받고 또 미련 없이 자기 갈 길을 가면 된다"고 후배들을 응원했다.

이효리가 이날 강조한 '독고다이'는 '특공대(特攻隊)'의 일본어 발음이지만, 국내에선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로 쓰인다.

그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며 "나보다 뭔가 나아 보이는 누군가가 멋진 말로 깨달음을 주길, 그래서 내 삶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길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리라"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탈북여성 1호 통일연구원 "내가 누린 최고 호사는 책"

조현정씨, 공채 연구원 합격
골프장 캐디하며 북한학 박사 따

탈북 여성 1호 통일연구원 공채 연구원이 탄생했다. 지난달 15일 근무를 시작한 조현정(사진) 부연구위원이 주인공이다. 2003년 한국 땅을 밟은 조 위원은 주경야독으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딴 뒤 통일연구원에 재수 끝에 입성했다.

조 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30여개 가 족히 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골프장 캐디 일을 하면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다"며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즐거웠고 공부를 하면서 자존감이 채워졌다"고 말했다. "지금도 내가 누리는 최고의 호사는 명품 가방이 아니라 책"이라고 웃었다.

입국 당시 다른 탈북민들과는 달리 당당하게 얼굴을 공개했던 그였지만 한국 적응은 역시 쉽지 않았다. "한국 내에서도 서로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는데 북에서 온 사람은 오죽하겠나"라며 "특히 북한 억양을 고치기가 힘들었다. 물러나고 싶지 않았고, 견디고 견뎌서(그는 이 말을 8번 반복했다) 조금씩 성취를 해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자신의 롤모델이 '빨강 머리 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나이 마흔에 만난 앤은 내 삶의 등대였다"며 "가난한 고아 앤이 웃음을 잃지 않고 삶을 개척하는 불굴의 모습에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3만명을 훌쩍 넘긴 한국 내 탈북민에게 조언을 부탁하자 "조심스럽다"면서도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 좋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오니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조 위원에게 통일연구원은 끝이 아니다. 연구원으로 정년을 맞은 뒤의 삶을 위해 또다시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업무 시간 외에 경영대학원 석사(MBA) 취득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고, '코칭학'도 연구 중이라고 한다. 그는 "인생이 힘에 부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그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코칭학 관련 1단계 자격증은 땄고 더 높은 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사설

민주당 위성정당의 위험한 정체성, 이재명 대표가 설명하라

역대 최악이라는 21대 국회의 오명(汚名)을 딛고 22대 국회는 일신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좌파정당·단체들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을 협의하기 위해 꾸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의 면면을 보면 다음 국회도 기대는커녕 큰 우려가 앞선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연합'의 첫 연석회의엔 연합정치시민회의를 대표해 박석운·조성우·진영종 공동운영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냈다. 박석운 위원장은 한·미 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사드 배치 저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굵직한 좌파 시위마다 빠지지 않고 선두에 섰던 인사다. 조성우 위원장은 이적단체인 범민련 실무회담 대표를 지냈고, 진영종 위원장도 국보법 폐지 운동을 벌였던 인사다. 이들 외에도 연합정치시민회의에는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지난해 민주당 혁신위원장직에서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반미·종북 인사에게도 비례대표 공천 주려는가
위성정당도 최소한의 이념·도덕 기준 세워야

민주당은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진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어차피 비슷한 코드의 인사들을 추천할 게 뻔하지 않겠나.

또 과거 운동권의 NL(민족해방)계가 주축인 진보당도 '선거연합'에 참여했다. 진보당은 지금도 공공연히 NL 노선을 추종하는 정당이다. 진보당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정책 노선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한·미 동맹 반대와 비동맹 외교 추진 ▶병력 20만 명으로 감축 등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과연 이런 인사들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줄 작정인가.

정상적인 선거시스템이라면 이런 비상식적 주장을 펴는 정치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극단주의 세력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위성정당은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이 불가능해 저질 정치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저질 정치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 상당수가 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이었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윤미향 의원,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물의를 빚은 김의겸 의원 등이 그들이다.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위성정당을 통해 반미를 선동하고 괴담을 유포하는 세력이 국회에 들어온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이러저러한 사람들은 비례대표 후보로 받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이념적·도덕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성정당의 정체성을 국민들 앞에 설명하라. 이 대표가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으면 그 정도라도 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도리일 것이다.

미·일 향한 북한의 직거래 시도…한국 소외돼선 안 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기시다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풀어 낮은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려는 차원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금의 북·일 관계 현상에 비춰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기시다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각하'라는 호칭을 쓰며 위로 서한을 보냈다. 북한이 같은 시기 한국을 비하하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긴장을 고조시킨 모습과 대비된다. 북·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종의 통일봉남(通日封南)을 염두에 둔 북한의 전략일 수 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 경선에서 김 위원장을 친구로 부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전 중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서울을 거쳐 워싱턴으로 향했던 2018년과 달리 미국과 직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응해 북·중·러 밀착으로 뒷배를 챙긴 북한이 미·일과의 직거래를 통해 한·미·일 공조를 와해시키겠다는 구상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미, 북·일 관계 개선 자체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깜깜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제 강점과 6·25전쟁 등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 하고, 경제적 보상 등 대가는 한국이 부담하는 제네바 합의(1994년)나 9·19 공동성명(2005)을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마침 일본 언론은 어제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방한해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회담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북한과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을 긴밀히 협의하길 바란다. 또 외교와 정보 채널을 적극 가동해 한·미·일 정보 교환과 협력 강화를 다져야 할 시간이다.

북한은 어제 순항미사일을 또 쐈다. 올해 들어서도 첨단 무기 개발과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한·미·일 협력은 북한의 이런 잘못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다. 대화든, 군사적 대응이든 한·미·일이 함께 움직일 때 그 힘은 배가된다.

'사과'의 세 가지 유형

김현기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설 연휴 기간 장안의 화제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됐다. 윤석열 대통령-KBS 대담, 그리고 클린스만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이다. 관점과 가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화제를 관통하는 공통 배경 키워드는 '사과 없음' '유효슈팅 없음' 아니었을까. 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에 대해 이렇다 할 사과 없이 '아쉽다'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들은 아쉬워했고, 역대급 졸전에도 활짝 웃으며 한마디 사과 없이 미국으로 떠나버린 클린스만의 역대급 멘털에 국민들은 기가 막혀 했다.

우리 국민은 상대방의 사과에 유독 예민하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보다 사과하지 않음에 더 화를 낸다. 반대로 무작정 차선에 끼어든 차량이 비상등이라도 한 번 켜 주면 마음이 스르르 녹는다. '아임 소리' '스미마셍'을 입에 달고 사는 미국·일본 같은 나라완 다르다.

그런 현실에서 정치인들의 사과를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일본'형. 해도 한 것 같지 않은 사과다. 마지못해 사과해 놓고 바로 뒤집는다. 그 대표적 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1심과 같다.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미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반박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는 '진지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다. 그 와중에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검찰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신당을 창당했다. 상식적인 국민은 이런 걸 두고 반성이나 사과라고 하지 않는다. 말로는 죽창가를 외치면서 하는 행태는 사과와 말 뒤집기를 반복하는 일본과 빼닮았다.

둘째는 '자판기'형.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되면 체면 가리지 않고 몇 번이고 "아무튼 사과한다"고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밝히면서 무려 네 번이나 고개 숙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적이다. 다만 영혼 없는 사과란 지적을 받는다. 예컨대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한 부분. 사과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미래의 행동을 미리 사과했다. 사과할 미래라면 지금 안 하면 된다. 그러니 며칠 안 가 "내가 사과한다고 하니까 진짜 사과한다고 생각했느냐?"란 말이 튀어나올 것 같다.

마지막은 '트럼프'형. 끝까지 버티고 논점을 흐린다. 그는 4년 재임 중 3만573번의 거짓말을 했지만(워싱턴포스트 조사), 공식 사과는 한 건도 없었다. 부적절한 언행이 들통나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경험칙 때문일 게다. 그러다 보니 지지자는 물론이고 반대론자, 언론들도 트럼프에겐 아예 사과라는 걸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게 됐다. 하지만 당장은 쾌재를 부를지 모르나 결국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생긴다. 아,

조국, 이재명, 트럼프의 사과 차이
정치인 머쓱하게 한 손흥민의 사과
윤 대통령은 어느 쪽 택하려 하나

드물지만 또 하나의 사과 유형이 있긴 하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나선다. 손흥민·이강인·김민재 같은 우리 축구선수들이다. 이런 이들 때문에 그나마 살맛 나는 세상이다.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지만, 패자는 '너 때문이야'라고 탓한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J 하비스의 말이다. 윤 대통령은 승자일까, 패자일까. 눈을 밟고 있는 걸까, 녹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어떤 보수 원로 언론인은 최근 "치밀하고 계획적인 좌파가 과연 사과로 넘어갈 것 같은가. 2막으로 넘어갈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맞다. 좌파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나 같은 보통 국민 상당수는 적당히 사과했다면 1막으로 수긍했을 것 같다. 어찌 됐건 이제는 윤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말해 주길 원하기보다, 그저 미안하다고 느끼는 것을 더 원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본다.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나저나 클린스만은 결국 사과를 할까?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jl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j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9시 30분 - 오후7시 ■일: 오전11시 - 오후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2월 스페셜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점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백돌이 온열지압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등 다양한 기능 탑재

무이자 할부 최고 36 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날 제품

지압봉 기계

체온 1C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지압봉 모션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102개의 지압봉 + 2 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온열 지압 카우치

▶온열 지압 상감 평상

본토 흙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흙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ECO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2,900~~ $2,300

~~$3,000~~ $2,500

본토흙침대 100% 생황토

장윤정의 흙표 흙침대

흙표 흙침대 워싱턴 대리점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흙표 흙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흙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솔잎뜸질 찜질효과

흙표 흙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흙표 흙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퀸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전면: 고급 인조 양털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흙표흙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던 지정 대리점

월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5 3중 고온 안전처리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가능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돌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임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로 건강을 챙기고 피로를 푸세요~

닥터Q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 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누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피로한 눈-뻑뻑함 눈꼽낌-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129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히트상품★ 마사지 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쉴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 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LOTTE PLAZA market

물가안정 47탄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FEB. 15th - FEB 22nd, 2024

밥맛 좋은 이천쌀

•입맛 살리는 세일•

Rhee Chun Rice
(Extra Fancy Rice)

NEW CROP • NEW CROP • 햅쌀

New Variety
Extra Fancy Rice
U.S. No.1
California Grown

RHEE CHUN RICE

LIMIT 2 BAGS

$39.99

$29.99
40 LB

RHEE CHUN RICE

편집 중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품절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Sterling, VA
30 Pidgeon Hill Dr. Sterling, VA 2016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5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93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90 Elden Street Herndon, VA 20170

El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Silver Spring, MD
13625-A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 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 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 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읍니다.
t.(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해볼까

친환경 주택 업그레이드 이렇게

최근 친환경(Eco-friendly) 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친환경 주택이란 태양광 패널, 에너지 고효율 창문, 절수형 변기처럼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줄이고 효율성은 향상시킨 주택을 의미한다. 게다가 친환경 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주택 가치가 상승돼 향후 판매 시에도 도움이 된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친환경적으로 주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무탱크온수기, 절수형 변기 고려할 만
기능성 커튼 실내온도 30%까지 단열

친환경 주택을 위한 첫걸음으로 실내외 전구를 백열등보다 에너지를 90%나 덜 사용하고 수명은 25배 나 긴 LED 전구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unsplash.com 캡처]

▶태양광 패널

친환경 주택 업그레이드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태양광 패널. 연방 에너지부에 따르면 태양광 사용 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절수 및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더욱이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고비용 역시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설치를 고려해 볼 만하다. 주거용 태양광 패널 설치비는 평균 1만6000달러 정도이지만 이 비용은 10년 내에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무탱크 온수기

주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탱크 온수기는 물 사용량과 상관없이 탱크 속 물이 지속적으로 가열된다. 즉 온수량과 상관없이 탱크 속 물을 가열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다. 이런 에너지 낭비를 막기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무탱크 온수기(Tankless Water Heater)다. 무탱크 온수기는 물이 파이프를 통과하면서 가열되는 방식이어서 에너지 절약은 물론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 온수가 떨어질 일도 없다. 무탱크 온수기는 탱크형보다 구매 및 설치 비용은 비싸지만 에너지 절약과 사용 기한을 따져봤을 때 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절수

배관 제품의 연방 표준이 1994년 이후 절수형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배관이 1990년대 초반 이전 것이라면 물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 변기의 경우 절수형으로 교체 시 물 사용량을 연간 20~60%까지 줄여 약 14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저수량 수전(low flow faucets)이나 절수형 샤워헤드 교체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외에도 수전에 설치하면 되는 절수형 수전 에어레이터(aerator)는 기존 수압이나 물 흐름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데 홈디포나 아마존 등에서 5~10달러 정도에 구입 가능하다.

▶단열 창문

연방 에너지부에 따르면 실내 냉난방의 최대 30%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한다. 따라서 내부 단열이나 햇빛 차단 기능이 없는 창문이라면 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창문 전체를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대신 커튼 뒷면이 자외선 차단 소재로 된 두꺼운 암막 커튼 또는 단열 커튼을 설치하면 실내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연방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런 기능성 커튼을 설치하면 여름철 실내 온도를 최대 33%까지 낮출 수 있다.

또 리모델링 전문업체들은 "만약 창문에 틈을 발견했다면 틈 사이를 웨더스트립(weatherstripping)이나 코크(caulk) 등으로 막아주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외에도 창문 필름,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스마트 시스템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구글이 제공하는 네스트(Nest)를 비롯해 에코비(ecobee.com), 트레인(trane.com) 등과 같은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런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면 연간 냉난방비를 평균 8%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스마트 온도 조절기 개발 업체들은 "스마트 시스템은 실내 온도의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의 온도를 찾아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해 준다"며 "원격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실시간 알림도 수신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한다.

▶절전형 가전

만약 새 가전제품 쇼핑 계획이 있다면 절전형 제품 구입을 고려하자. 절전형 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다양한데 이들 제품은 설치와 동시에 전기료 절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다. 또 제품 구입 시 연방 또는 지역 정부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에 구입이 가능하다.

이주현 객원기자

» 6면 '친환경 주택'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야곱의 사닥다리
www.jj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닫은 자리
5500 SF, 랜트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식당 닫은 자리
4500 SF
차이나 타운 부근
식당 닫은 자리
7800 SF
워싱턴 디씨
버지니아 에쉬번
식당 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
상 가
비엔나, 버지니아
상가, 연 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태권도장 자리
2700 SF
버지니아 폴스처치
태권도장 자리
2900 SF
버지니아 에쉬번
사 무 실
고급 사무실 자리 랜트
타이슨스 코너
겔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 24시간, 8300 SF.
창 고
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 랜트
9000 SF, 버지니아 헌든
주 택
콘도, 방2개, 화장실2개
메트로 근처, 웨그맨옆
차고1개 있습니다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주 택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투자 컨설팅
사 업 체
주재원 랜딩 서비스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 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집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주요국 중 두 번째로 싼 한국 증시

자료: 한국거래소

PER=주가수익비율 : 기업의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주식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값
PBR=주가순자산비율 :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보다 주식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값

국가	지수	PER	PBR
미국	SPX	23.4	4.6
스위스	SMI	19.0	3.9
덴마크	OMXC25	20.0	3.0
멕시코	MEXBOL	16.8	2.2
호주	AS51	16.6	2.1
대만	TWSE	22.0	2.1
일본	NKY	30.1	2.0
네덜란드	AEX	14.3	1.9
터키	XU100	6.2	1.9
캐나다	SPTSX	16.5	1.9
에스토니아	TALSE	13.9	1.8
뉴질랜드	NZSE50FG	29.3	1.8
프랑스	CAC	13.1	1.8
노르웨이	OBX	13.9	1.7
핀란드	HEX	13.9	1.7
아일랜드	ISEQ	13.4	1.7
영국	UKX	10.1	1.6
스웨덴	OMX	14.4	1.5

국가	지수	PER	PBR
독일	DAX	14.6	1.4
포르투갈	PSI20	6.7	1.4
리투아니아	VILSE	9.8	1.4
벨기에	BEL20	15.2	1.2
이스라엘	TA-35	11.7	1.2
중국	SSE	11.0	1.2
그리스	ASE	7.3	1.2
폴란드	WIG	7.8	1.1
이탈리아	FTSEMIB	7.0	1.1
싱가포르	STI	11.1	1.1
칠레	IPSA	8.5	1.0
헝가리	BUX	7.3	1.0
체코	PX	7.8	1.0
슬로베니아	SBITOP	8.6	1.0
스페인	IBEX	10.9	1.0
오스트리아	ATX	7.4	0.9
한국	**KOSPI**	**17.3**	**0.9**
콜롬비아	COLCAP	6.2	0.7

※2024년 1월 24일 기준. ※OECD 38개 국가 중 수치가 마이너스거나 집계되지 않는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제외, 싱가포르와 대만, 중국 포함

기업엔 상속세 폭탄, 주주는 쥐꼬리 배당 'K엑시트' 가속

〈KOSPI·KOSDAQ+Exit〉

한국 증시, 왜 못 오르나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지난해 말 한국 경제에 대해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에 빠졌다고 비유했다. 중대한 위기가 닥쳐오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해결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맥킨지가 지적한 위기 중 하나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다.

한국은 왕성한 무역으로 작은 내수시장을 극복하며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을 이뤘지만, 경제를 성장시키는 '자본 혈류'는 현저히 정체한 모습이다. 맥킨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본 증대량(공모펀드·사모펀드·회사채 등 증권 발행 규모 비중)은 2018년 10.9%에서 2022년 8.2%로 계속 감소 중이다. 자본 증대량은 그 나라의 자본 성숙도를 가리키는 척도로 통한다.

실제 외국 자본은 한국 증시를 떠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2004년 41.2%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30% 선이 깨졌고, 지난해 28.8%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중국을 빠져나온 자금이 한국을 외면하고 일본과 인도로 향하고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도 해외 증시로 갈아타고 있다.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급격히 늘어 지난해 741억 5000만 달러(약 99조원)로 2014년 대비 20배 급증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진입하거나 오래 머물길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총수일가 등 대주주를 제외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에 박하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 기업은 주주를 잡아두려는 의지가 강하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현금이 부족하면 회사채를 발행해서라도 자사주를 사고 배당을 늘려 왔다. 지난 10년(2012~2021년) 간 애플이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은 4670억 달러(560조원)에 이르고, 애플 주가는 13배 넘게 상승했다. 반면에 한국은 기업이 자사주를 사더라도 매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기업에선 증여세나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주가 상승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은 분위기도 감지된다. 맥킨지는 이를 '성장하지 않으려는 인센티브'라고 표현하며 "시장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한국 시장의 매력도는 계속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 투자전문가인 이핑 리아오 프랭클린템플턴 매니저는 "한국 시장은 물적분할처럼 소액주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기업활동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배당성향이 낮고 배당금 예측이 어려운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지나치게 강한 극소수 최대주주(총수) 영향력 ▶최대 60%에 이르는 상속세율 ▶기업 인수 시 최대주주에게 인수한 주당 가치를 소액주주에게도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휴 패트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얼마나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정책을 갖추느냐가 해외 투자자 유인의 중요한 열쇠"라고 조언했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와 생산성을 늘리고, 기업·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성장 정책의 핵심"이라며 친시장·친기업·친투자적인 정책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배정원 기자

일본 '이토 보고서' 그후 10년 닛케이지수 '불장' 랠리 시작

일본 증시 호황, 이유는

'34년 만의 불장'. 일본 증시가 30여 년 만에 날아오르고 있다. 지난 9일 닛케이225는 장중 한때 3만7000선을 돌파해 3만6897에 마감했다. 이 지수가 3만7000선을 넘은 건 199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일본 증시의 환골탈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0년 넘게 증시 부양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한국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밸류업 펀드'(가칭 코리아프라임지수)도 일본이 원조다. 일본은 지난해 수익성과 가치평가 지표가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된 'JPX 프라임 150'지수를 출시하고, 올 들어선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도 상장했다. 한국도 일시적인 대증요법이 아닌, 꾸준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3년 출범한 아베 신조 정부는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할 경제 성장 전략으로 '세 개의 화살'(금융·재정·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중 세 번째 '성장전략'의 일환이 금융시장 글로벌화였다. 해외 투자자금을 유치해 경제 성장의 마중물로 쓰겠다는 구상이었다.

아베 내각의 경제 책사였던 이토 구니오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주주권을 강화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토 보고서'(2014년 8월)를 발표했다. 이토 교수는 자기자본이익률(ROE)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개선)를 곱한 'ROESG'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익성과 ESG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 증시 부양의 양대 정책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거버넌스 코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선 투자자들이 지속가능 이슈에 대해 기업과 적극 대화할 것을 강조했고, 거버넌스 코드에선 기업이 사업경쟁력 확보와 투자자 수익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공적연금(GPIF)이 2017년부터 "투자의사 결정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본 기업들도 '큰손'을 유치하기 위해 ESG 정보를 공시하게 됐다.

이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선언하며 더 직접적인 증시 부양책을 내놨다. 일본거래소는 지난해 3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하의 저평가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개선안을 요구했고, 기업들은 지난해에만 9조6000억 엔(약 86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하며 랠리에 방아쇠를 당겼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는 일본 증시에서 지난해 3조1000억 엔어치를,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만 1조9000억 엔어치를 사들였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개정안도 일본 증시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과세 적용 기간 한도가 폐지되고, 총투자 한도가 늘어나는 투자자 우대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일본은 예금 금리는 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기업의 배당금은 늘고 있어 자산을 늘리려는 장기 투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일본의 배당수익률은 1월 24일 기준 2.2% 수준으로, 일본 예금금리(10년 정기예금) 0.2% 수준보다 훨씬 높다. 김경진 기자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개런티 이자
/단기 (3년, 5년, 7년)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 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3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703-200-1412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고도 제한 어겨 입주민 날벼락 김포 고촌 양우내안에아파트

너무 높게 지은 아파트 위쪽 싹둑 자른다는데

지난달 14일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신축 양우내안에아파트에 간 임효순(61·여)씨는 단지에 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에 좌절했다. 아파트를 준공하게 됐다고 해서 받은 이사 날짜였다. 살고 있던 집엔 다른 사람이 오는데 이사 직전 못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고도 제한보다 높게 짓는 바람에 관련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였다. 들고나온 가구라도 새 아파트에 넣어두려 했으나 그조차 막혔다. 임씨는 인천 강화에 사는 지인의 집에서 방을 하나 얻어 지낸다. 다른 피해자들은 오피스텔이나 호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으나 임씨는 반려견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입주 못해 임시 거처서 지내

오피스텔로 들어간 김명렬(74)씨는 밤에 도로 소음이 심하고 외풍 때문에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12일 이사하려고 살던 집까지 판 그는 이사 이틀 전 입주 청소를 하려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월남전에 다녀온 국가유공자인 그는 "하루에 두 시간도 못 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입주를 시작했어야 할 8개 동 399가구의 이 아파트 단지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22일. 한국공항공사가 '해당 건축물이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했다'고 통보하면서다. 공항공사 측은 7개 동이 고도 제한 높이(57.86m)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동에 따라 초과 높이는 63~69㎝였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방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항시설법 34조를 위반한 것이다.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항공기 운항이 잦은 김포공항 인근에 지은 아파트가 고도 제한을 어겨 주민들 입주가 막힌 초유의 사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건설사 관계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김포 지역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고도 제한 준수는 필수"라고 말했다. 건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약간의 오차는 허용한다. 배관 작업 등을 하다 보면 처지는 부분이 생겨 아파트 높이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주며 이 아파트가 초과한 69㎝는 통상 허용 범주 안에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항 인근에선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고도가 명확해 감리에서도 철저히 점검한다. 한 건설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일반적인 허용 오차만 생각하고 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은 간과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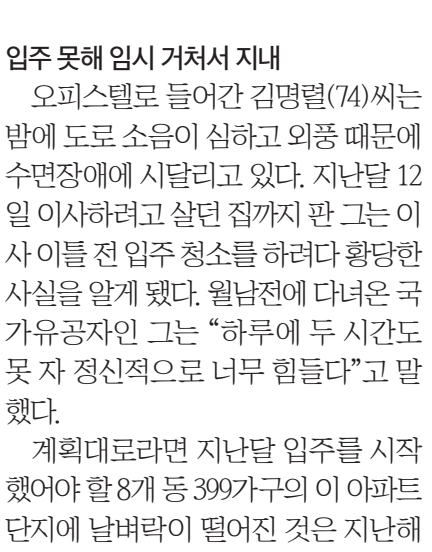
이 아파트 시공사는 양우건설이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2023년 8월 1일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9104억원이라고 나와 있다. 2013년 12월 김포도시철도 3공구와 4공구를 수주하는 등 김포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력을 소개한다.

아파트 옥상에 자를 곳 표시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40분쯤 해당 아파트를 찾아가 봤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주민들이 입주해 차를 세워야 했을 지하 주차장에 금속 기둥을 촘촘히 세웠다. 공사 현장처럼 보인다. 101동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가보니 그곳도 공사장처럼 각종 구조물이 바닥에 널려 있다.

옥상에 있는 엘리베이터 옥탑 구조물과 난간 부분 구조물에 검은 선들이 그어져 있다. '컷팅선'이라는 글씨가 옆에 적혀 있다. 공항공사가 제한 표면을 침투했다고 지적한 건물 부위를 잘라내 고도제한을 맞추기 위한 표식으로 보인다.

고도제한을 침범한 부분을 해체하고 재시공해 다음 달 11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 양우건설 측의 설명이다. 옥상 난간 장식 구조물과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 구조물이 해당한다. 건물 윗부분을 잘라내는 방식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양우건설 관계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절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김포 고촌양우내안에 아파트 옥상에서 고도 제한을 초과한 건물 부분을 잘라내고 있다. [사진 지역주택조합]

지난달 26일 곽종근 김포고촌역지역 주택조합장이 양우내안에아파트 옥상에서 절단면이 표시된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강주안 기자

김포공항 인근 규정보다 63~69㎝ 높게 지어 입주 불가
옥상서 엘리베이터 옥탑 철근콘크리트 일부 철거 공사 진행

옥상 출입문 낮아질 우려

현장에서 보니 옥상 난간 부분의 경우 높이를 초과한 부분을 잘라내면 외형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난간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원래 모습보다 불안하긴 해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관련 시설인 건물 윗부분을 잘라내는 부분은 쉽지 않아 보인다. 70㎝ 정도를 제거해도 문제가 없을지도 의문이지만,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의 높이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화재 등 발생 시 주민들이 옥상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잘라내는 작업 자체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현장을 가 본 101동은 7개 동 가운데 초과 높이가 가장 낮은 63㎝다. 69㎝를 초과한 104동의 경우 출입문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사진을 본 시공 전문가는 "계단실 자체가 기본적인 형태를 못 갖추다 보니 설계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민들 사이에선 시공사와 감리사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일단 건물이 지어진 이상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돼 있고 법에 규정된 사항이어서 임의로 양해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주민들에 따르면 몇 달 전에 이미 아파트의 형태가 완성됐다.

이후 인테리어와 외벽 도색 작업 등이 오랫동안 진행됐다. 건물이 제한 표면을 침범해 사고 위험이 있는 상태로 상당 기간 방치된 셈이다.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항공기 안전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육 차질로 직장 나오기도

아파트 착공을 앞둔 2019년 11월 공항공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회신에서 건축물 설치와 관련해 '최고높이 도달 후 7일 이내'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엘리베이터 옥탑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직후 공항공사와 협의했다면 즉시 시정에 착수할 수 있었다. 입주민이 곤경에 빠지거나 제한 표면 침투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는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을 피하는 게 가능했다.

임시 거처에서 지내는 입주민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양우건설은 본격적인 재시공에 들어갔다. 지하주차장에 금속 기둥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선 "옥상 공사의 크레인 작업 때문에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주민 피해 보상 무성의"

졸지에 떠돌이 신세가 된 입주민들은 입주대책위원회를 통해 피해 상황을 취합하고 있다. 집집마다 갖가지 피해가 속출한다. 아이 교육과 보육이 초비상이다. 맞벌이인 아들 부부를 위해 손자를 돌보던 조부모가 입주가 막혀 인천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아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고 한다.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이곳은 서울에 인접했지만,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에 해당한다. 이 전형에 지원하려면 학생이 중·고교 6년을 다녀야 한다. 당초 입주일이 1월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3월 11일로 연기되면서 중학교 입학일에 입주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 입학을 못 하면 특별전형 지원에 차질이 생긴다.

일주일 차이로 전학하게 돼 두 학교의 교복을 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곽종근 지역주택조합장은 "아무 잘못 없는 입주민 피해가 너무 크다"며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는 양우건설 등에 '입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주민들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보상 문제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저희가 관여를 못 한다"고 말했다.

서가공(32) 입주대책위원은 "입주를 못 한 분들에게 각종 비용 지급을 위해 양우건설에 예치금 1억원을 요청했으나 이조차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안 논설위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셔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젼트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챈틀리 타운홈 — PENDING — $560,000 — 방3, 화3.5, 차고1, End Unit, 2009년산, 사우스라이딩

버크 타운홈 — PENDING — $549,000 — 방4, 화3.5, 2 Assigned, 뉴키친, 뉴윈도우, 굿 로케이션

센터빌 싱글홈 — PENDING — $690,000 — 방3, 화3.5, 차고2, 새지붕, 새HVAC, New Flooring, 뒷마당 넓은 집, Fully Fenced

COMING SOON
헤이마켓 싱글홈 — 방4, 화4.5, 3600sf, 업그레이드 중
페어팩스 타운홈 — 방3, 화3.5, 업그레이드, 굿 로케이션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 경 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지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챕터 7·챕터13·학자금융자 감면 서브챕터 5 ·챕터 11 ·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아파트 고무줄 감정가격, 알고보니 대출늘리기 꼼수

은행이 제각각 평가기관에 의뢰
같은 단지가 최고 20억, 최저 15억

새해 입주 준비가 한창인 주요 아파트의 감정가격(담보조사가격)이 들쑥날쑥한 데다, 은행별로 가격 격차가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가는 예비 입주자가 아파트 입주 전 마지막으로 잔금과 중도금 대출의 이자 등을 지불하기 위해 받는 잔금 대출의 총한도를 결정한다. 높은 감정가로 대출 수요를 늘리는 은행의 '꼼수 영업'이 자칫 가계 대출을 자극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중앙일보가 올해 1~2월 입주하는 새 아파트 8곳의 감정가(전용면적 84㎡ 기준)를 입수해 살펴보니, 청약 경쟁률 등 수요자에게 인기가 많은 단지일수록 은행 간의 감정가격 차이가 컸다. 감정가 격차가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제일풍경채'로 2억5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감정가를 가장 높은 15억원으로 산정했다. 가장 낮은 가격은 12억5000만원으로 평가한 국민은행이다. 최고가는 2021년 당시 분양가(전용면적 84㎡ 기준 약 9억원)를 크게 웃돈 데다 고덕동 대장주로 꼽는 고덕그라시움(전용면적 84㎡ 기준)의 지난달 실거래(15억6000만원)와 맞먹는다.

감정가 차이는 잔금 대출의 전체 한도에 영향을 준다. 단지별 잔금 대출 한도는 감정가 대비 70%(강남3구와 용산제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비입주자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선 10억5000만 한도에서 소득에 따라 빚 갚는 능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따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예비 입주자가 국민은행을 두드리면 총 대출한도는 8억7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파주 운정신도시의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의 감정가격도 최대 1억28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농협은행의 감정가가 6억24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신한(6억원), 하나(5억8600만원), 우리(5억원), 국민은행(4억9600만원) 순으로 낮았다.

동일한 단지를 놓고, 시중은행의 눈높이(감정가)가 달랐던 것은 올해 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 입주 단지 중 강북권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이목을 끌었던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L65'는 시중은행의 감정가 격차가 최고 5억원에 이른다. 하나은행의 감정가가 20억원(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최저가는 15억원으로 산정한 우리은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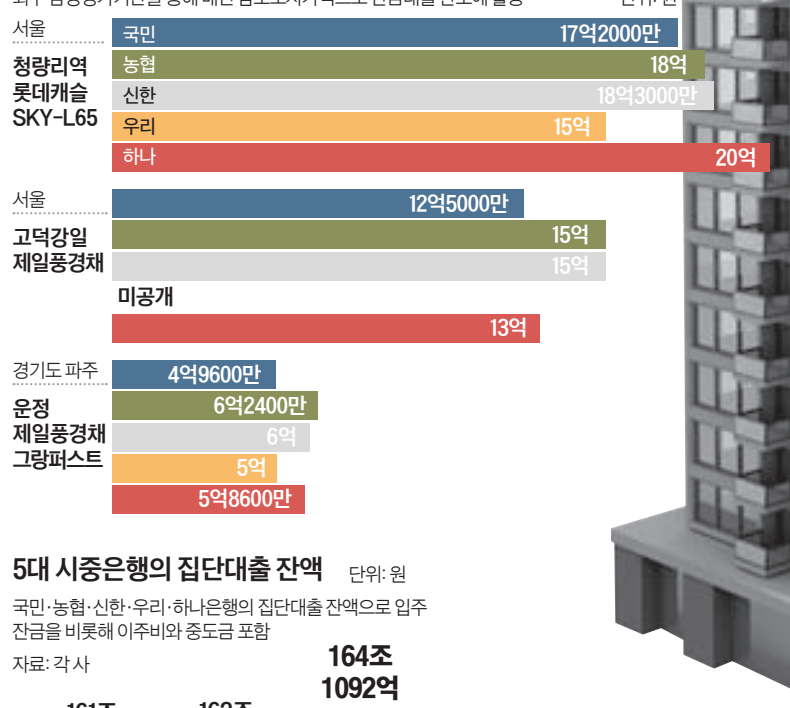
시중은행마다 잔금 대출의 한도를 결정하는 감정가가 들쑥날쑥한 데는 각자가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활용해 담보조사가격을 산정하고 있어서다. 2018년 이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입주 전·후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된 영향이 크다. 은행은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입주단지를 평가할 땐 그동안 활용했던 KB 부동산시세 대신 감정평가기관에 몸값(감정가) 의뢰를 맡긴다. 문제는 은행마다 감정평가기관 선정 방식, 감정가 채택 등 담보조사가격 조사 절차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감정평가사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감정가는 분양가와 분양률, 주변 시세로 평가하는데 (동일한 아파트를 두고) 감정가 차이가 2억원 이상 벌어지는 일은 드문 일"이라며 "은행 간 대출 경쟁이 치열할 때 (은행 입장을 고려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잔금대출을 둘러싼 시중은행의 대출 경쟁은 가계대출 증가를 자극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많은 은행으로 대출자가 쏠리면 다른 은행도 잇따라 감정가를 높일 수 있다. 5대 시중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잔금대출을 비롯해 이주비와 중도금대출을 포함한 집단대출 잔액은 164조1092억원으로 한달여 만에 2조17억원 늘었다. 염지현 기자

주요 입주단지의 감정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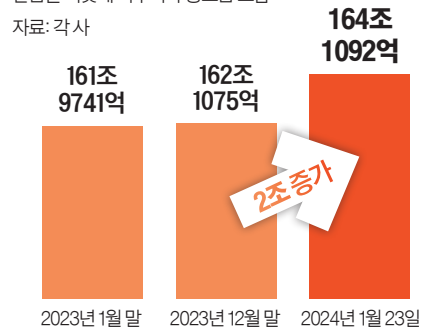
전용면적 84㎡ 감정가 기준. 감정가는 시중은행이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매긴 담보조사가격으로 잔금대출 한도에 활용 단위: 원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 단위: 원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으로 입주잔금을 비롯해 이주비와 중도금 포함

자료: 각 사



'캡' 없앴더니, 분양가 60% 오르고 미분양 20% 늘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후
광명 3.3㎡ 2000만원 분상제에 포기
2년 뒤 후분양, 3270만원으로 올라
공사비 급등에 주변시세 추월 속출

경기 광명시의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심의단지였던 광명2구역(트리우스광명)은 2021년 11월 3.3㎡(평)당 2000만원 선에 분양가가 결정되자 선분양을 포기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관리처분 변경총회(2700만원)를 거쳐 10월 3.3㎡당 평균 분양가를 3270만원으로 확정하고 후분양을 진행했다. 분상제 해제로 2년 전보다 분양가가 60%가량 올랐다. 결국 고분양가 논란에 분양물량의 20%가량(517가구 중 105가구)이 미계약돼 지난 6~7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정부가 지난해 '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민간 택지 분상제 적용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022년 2978만원에서 지난해 3495만원으로 1년 만에 517만원이 올랐다.(HUG)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84㎡ 기준으로 11억원이 넘는다. 특히 지난해 서울에서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3505만원으로 시세(3253만원)보다 비쌌다.(부동산R114)

규제를 걷어내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가가 급등하며 미분양이 많이 늘어났다. 분상제 지역이 몰려있던 수도권의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6998가구에서 지난달 1만31가구로 43.4%(3033가구) 늘었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는 무순위 청약을 두 차례나 진행했지만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했다. 분상제를 피해 전용 84㎡ 기준 10억4300만~11억5400만원에 분양했지만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분상제를 '양날의 검'에 비유한다.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용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게 분상제의 기본 취지다. 그러나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 청약에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청약 시장이 오히려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다.

실제 규제 완화에도 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여전히 청약통장이 몰린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서울지역 1순위 청약은 81가구 모집에 3만5828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442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 분상제 적용으로 최소 5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기대돼서다. 또 분양가를 억제하면 개발(시행)이익이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이 위축할 가능성도 커진다.

건설업계는 최근 원자잿값, 인건비 등 공사비 인상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노무·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말 121.80에서 지난해 12월 153.26(잠정치·2015년 100 기준)으로 3년 새 25.8%나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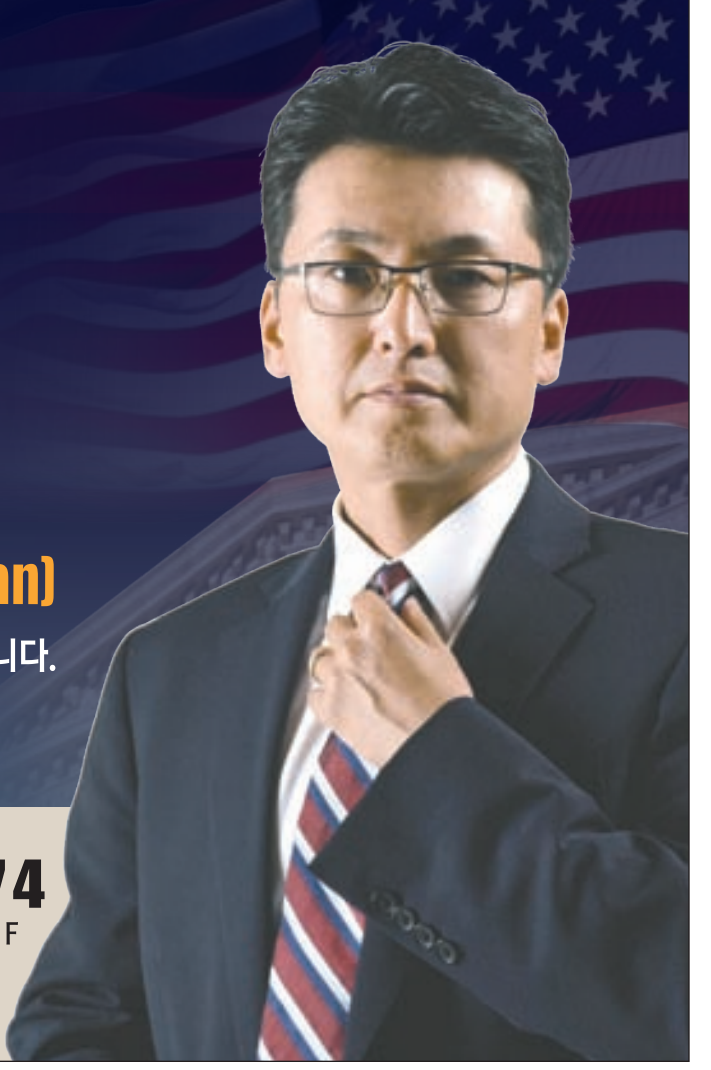
문제는 사업 시행자(조합) 등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분상제 해제로 공사비 인상분을 상회하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것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도 분양가 심의에 있어 분상제 적용 때와 달리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시행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승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 정부도 민간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예년보다 감소한 가운데 분양가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양가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지자체, HUG 등의 분양가 심의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 비키 리 부동산인가? 왜 악착같은 부동산인가?

1 17년 경력의 주택 관리 능력과 16년 연속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탑에이전트, 경험과 부동산 지식을 갖춘 브로커, 비키 리 입니다.

2 매년 변경되는 부동산 법, 버지니아, 매릴랜드, 디씨 혹은 각 카운티 별 준수해야하는 부동산 수칙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펫 디파짓: 돌려줘야 하나,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Non refundable pet deposit 은 불법입니다.

예) 브로커가 아닌 에이전트가 임대주택관리 해줄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관리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예) 디파짓은 2개월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스모크디텍터: 각방마다 각 층마다.
지하실과 주방 이산화탄소 &amp: 스모크디텍터 설치

3 고객의 이익을 최 우선시하며 계약시 계약조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믿을만한 부동산이 필요하신가요?
부동산의 관한 어떠한 질문이라도 비키 리 부동산에 전화 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 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융자 칼럼

브릿지 론 (Bridge Loan)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올 초 부동산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아직 거래량이 확 늘어난 걸로 보이진 않지만 최근 거래되는 주택들을 보면 정말 집을 사기가 이리도 힘들수 있나 싶었던 그 난리를 쳤던 팬데믹 어게인으로 되돌아가는 느낌까지 드는듯 하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매물부족 때문인지라 이미 예상 되었기도 하지만 웬만큼 괜찮은 가격대의 주택이 하나 시장에 나오면 많은 경쟁자들이 서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웃돈에 웃돈 그리고 셀러가 싫어할 모든 컨틴젼시들을 최대한 없애고 계약을 진행하는 이른바 전쟁이 또 시작된것 같은 분위기이다.

많은 이들이 기대하듯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자율도 내릴것으로 예측되면서 위축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곧 회복될것으로 크게 기대되는 바, 여전히 부족한 매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집이 나오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전에 우선 잡아두자는 심리가 한몫을 해서 더 그런듯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가길 원하는 많은 이들에겐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꿈을 또다시 접고 뒤로 미뤄야 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아무래도 지금같은 지독한 셀러마켙에서는 기존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고자하는 바이어들은 셀러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구매자가 아니기 때문이리라.

어찌해야 할까? 무작정 집을 먼저 팔고 난뒤에 새로운 집을 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현시장에서 집을 팔고 산다는 홈세일즈 컨틴젼시로 구입하는 오퍼는 전혀 셀러가 관심을 가질일이 없으니, 이러다가 올해도 집을 새로 사서 이사가는 꿈을 접어야 하나 많은 고민이 될것이다.

이런 고민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브릿지 론(Bridge Loan)을 소개한다. 특히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상당분의 에쿼티를 갖고 있어서 이를 다운페이먼트로 활용해야 새로운 주택 구입에 큰 융자 부담이 되지 않을 많은 이들에겐 브릿지 론은 단기적인 에쿼티 활용 창구역할을 할수 있도록 한다.

브릿지 론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새로이 이사갈 집을 구입할때 다운 페이먼트로 활용할수 있는 단기 대출 프로그램이다.

당장 내 집을 팔지 않고 거주하면서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절차를 착수할 수 있게 된다는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보통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사용할수 있는 브릿지 론은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주택을 쉽게 구입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한후에 기존의 집을 판매해서 이를 갚아버리는 방식이다. 다만 현재 기존 집에 충분한 에쿼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1년이내에는 해당 집을 팔아서 갚을수 있어야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한다. 따라서 기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수 있겠다. 현재 집에서 에쿼티를 활용해서 새로운 집을 구입하고자 하지만 새로운 집을 구입한후에도 기존 집을 팔지 않고 새로 구입한 집과 둘다 계속 소유하길 원한다면 이때는 홈에쿼티 라인오브 크레딧을 통한 에쿼티 활용을 추천한다. 홈에쿼티 라인오브 크레딧을 통해서 기존 주택에서 충분히 에쿼티를 뽑아서 이를 다운페이먼트로 활용하는것도 기존 집을 팔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다. 지금 집을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새로운 집을 구입하길 원한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길 권한다.

기존 집을 확실히 팔아야만 하는건지 아닌지. 만일 팔지 않고 두집을 다 갖게 되었을때 이를 다 감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을것이다. 결론이 내려졌다면 이제 가장 알맞는 방법을 준비해서 실행하자. 어려운 시장 여건에서도 원하는 꿈을 이룰수 있을것이다.

항상 한발 앞서서 미리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소비자의 자세를 기대한다.

▷문의: 703-868-7147

투자용 주택 구입

이번 칼럼에서는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렌트 수익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얼마를 다운페이먼트로 해야 매달 받는 렌트비에서 경비를 제하고 얼마를 손에 넣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자.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자면, 집값의 20%를 다운페이먼트로 하면 매달 얼마씩 내 주머니에서 돈이 그 집에 들어가야 하고, 30%를 다운하면 거의 맞아 떨어지거나 조금 모자랄 것이고, 35~40%를 넣으면 매달 얼마간의 금액을 용돈으로 남길 수가 있다.

예를들어 60만 달러의 타운하우스를 산다고 가정하자. 60만 달러의 타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렌트를 약 350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60만 달러의 집을 30%(18만 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하면 매달 경비로 나가는 비용을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자. 매달 들어가는 경비를 일반적으로 PITI 로 계산한다. 즉, P, Principal(원금), I, Interest(이자), T, Tax(주택세금), I, Insurance(화재보험) 으로 나눌 수 있겠고, 여기에 공동구역 관리비(HOA) 및 주택수리 및 공실률 비용을 생각할 수 있겠다.

모기지 이자율을 6% 정도로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원금과 이자, 즉 42만 달러를 30년 은행대출을 받으면 월 2518달러, 주택세금을 집가격의 보통 연 1.3%로 계산하면, 60만 달러X1.3%= 7800달러,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월 650달러가 나온다. 그 다음 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타운하우스인 경우에 HOA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HOA 비용이 약 400달러 정도로 계상하면 무리가 없겠다. 그다음 주택수리 및 공실률 비용으로 한달에 약 200달러 정도 넣어두면 된다. 이것을 모두 합해 보면 2518달러 + 650달러 + 400달러 + 200달러 = 3768달러란 계산이 나온다. 이를 렌트 월 3500달러를 받으면 매달 268달러씩 나의 주머니에서 더 나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40%를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즉 60만 달러의 40%인 24만 달러를 밑돈으로 넣고 나머지 36만 달러를 은행대출을 받으면 매달 내는 페이먼트는 2158달러가 된다. 나머지 비용은 같으니까 이를 모두 더해 보면 2158달러+ 650달러 + 400달러 + 200달러 = 3408달러가 나온다. 그러면 매달 렌트비로 3500달러를 받으면 그 차액 92달러의 렌트수입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상세한 계산을 하고 보면, 일반적으로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40%는 다운페이먼트를 해야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렌트를 만들어 주는 부동산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그리 크지 않으니까 주택수리와 공실률 비용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겠다.

제이슨 성·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 1면 '친환경 주택'에서 이어집니다

▶LED 전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LED 전구. 연방 에너지부에 따르면 LED 전구는 백열등보다 전기를 90%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수명은 25배나 더 길다고 한다. LED 전구는 이제 많은 가정에 표준 전구로 자리 잡았으나 만약 아직도 LED 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집 안 전구들을 교체해 보도록 하자. LED 전구 가격은 개당 3달러 선이다.

이주현 객원기자

'As Is' 세일과 인스펙션

얼마 전 한 바이어가 'As Is' 조항이 있어 셀러가 아무것도 고쳐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굳이 인스펙션을 해야 하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의외로 많은 바이어가 'As Is' 에 관해 잘못 이해하고 인스펙션을 하는 이유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 매매를 할 때 셀러는 부동산 양도에 관한 공개문서를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바이어가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실 등을 포함한 집의 상태, 집에 부착된 가구들의 고장 유무, 그리고 집에 있는 위험물질 유무 등의 내용을 셀러가 직접 게재해야 합니다.

'As Is' 조항은 매물을 보이는 것 그대로의 상태로 매매한다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As Is' 조항이 있더라도 위의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매매가 완료된 후라도 문제가 발견되고 셀러가 고의로 누락시킨 점이 입증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셀러는 양도 공개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할 의무가 있고 작성 시 매매 하려는 주택의 문제는 알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모를 때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의 현상을 기재하면 됩니다.

바이어가 인스펙션을 했을 경우 집에 중요한 문제 또는 공개문서에 기재 되어있지 않은 내용 등이 발견되면 바이어는 그 문제에 대한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셀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어는 인스펙션 후 문제가 있으면 고쳐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바이어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셀러는 고쳐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굳이 따로 'As Is'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엔 이미 매매 자체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 그대로 구입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셀러는 고쳐 주어야 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이어의 요구 사항에 대해 답변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매매를 위해서 셀러와 바이어가 합당하고 서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이어가 인스펙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스펙션 후 여러 가지 문제를 빌미로 가격을 깎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혹시라도 셀러가 집에 대해 모를 수도 있는 문제에 대비해서 바이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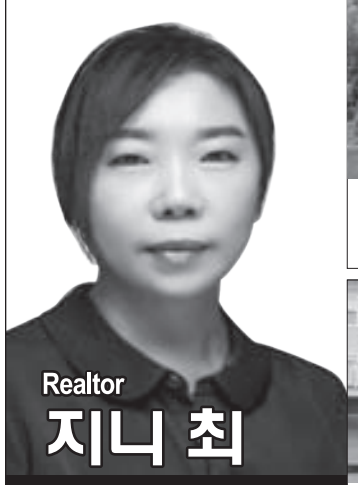
결국 중요한 것은 셀러는 아무리 'As Is'라 할지라도 집에 문제가 있는 사실은 숨김없이 공개 문서에 게재하여 알려주고 바이어는 혹시라도 셀러가 모를 수도 있는 문제에 대비해 인스펙션 함으로써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셀러도 무조건 'As Is' 만 주장하여 고쳐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식적인 선에서 원만한 매매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의 줄다리기에서 현명하게 각자의 책임을 다한다면 매매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소화될 것입니다.

케네스 정·드림부동산대표

REALTY 1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천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H MART®

FEEL AT HOME WITH THE TASTE OF KOREA

Winter Promotion! Experience K-Food with H Mart.

FEB. 16th – FEB. 29th, 2024
Available at H Mart Centreville, Fairfax & Ellicott City Stores.

RAW NATURE
Cooked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현미밥
7.4 OZ X 12 BOWLS/BOX
WHITE RICE **$8.99** BROWN RICE **$9.99**

PRODUCT OF KOREA
YECHEON
Korean Red Pepper Powder
예천 한국산 고춧가루
COARSE/2.2 LB
$26.99

HAIO
Korean
BBQ Sauce
해오름
불고기/
갈비양념
SELECTED VARIETIES
1.85 LB
$3.99

JINGA Gyoza Sauce/Salad Dressing (For Scallion/Onion)
진가 교자 만두소스/
파채양념소스/양파절임소스
$1.99 10.22-10.58 FL OZ

HAIO
Hot Pepper
Paste with
Vinegar
해오름
초고추장
17.63 FL OZ
$1.99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28.21 OZ
$8.99

HAIO Tea with Honey
해오름 액상차
SELECTED VARIETIES/2.2 LB
$5.99

SANGRIME Tea
산그리메 티
ALL VARIETIES/0.53-1.05 OZ
$3.49

HAIO
Aloe Vera
Drink
해오름
알로에 베라
드링크
ALL VARIETIES
1.5 L
$1.99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T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K FOOD KOREAN FOOD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진통제 맞고, 얼굴에 공 맞고” 막고 또 막은 조현우

넘버투 골키퍼로 김승규 공백 메워
허벅지 근육 손상에도 매경기 선방
요르단전 안면 방어 “실명 겁 안나”
“결과 아쉽지만 다음을 잘 준비해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팬들의 축하를 받으며 귀국하는 게 꿈이었는데….”

아시안컵 축구 대회를 마치고 지난 8일 귀국한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33·울산HD)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 묻어났다. 조현우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요르단에 0-2로 져 결승 문턱에서 탈락했다. 당초 한국의 목표는 우승이었다. 귀국 이튿날인 9일 만난 조현우는 “마음이 아주 무겁다. 선수들이 고생해서 정성껏 준비한 대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면서도 “동료들과 ‘앞으로 치러야 할 경기 많기 때문에 다시 잘 준비하자’고 다짐했다. 주장인 (손)흥민이도 ‘모두 희생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고 전했다.

일부 팬들은 지난 8일 밤 귀국한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과 대표팀 선수들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그러나 골키퍼 조현우만큼은 예외였다. 2018 러시아월드컵 독일전 당시 신들린 선방으로 2-0 승리를 이끌었던 조현우는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철벽 방어를 펼치며 위기 때마다 클린스만호를 구해냈다.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연장까지 1-1, 승부차기 4-2승)은 조현우가 기량을 맘껏 발휘한 무대였다. 그는 승부차기에서 사우디 3번 키커 사미 알 나지, 4번 키커 압둘라흐만 가리브의 킥을 잇달아 막아내며 한국에 8강행 티켓을 안겼다. ‘빛현우’ ‘거미손’이란 별명을 얻은 그는 경기 최우수선수(MVP)로도 뽑혔다.

조현우는 “3번 키커는 슈팅 성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손쉽게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4번은 정보가 전혀 없는 선수였다. 왼쪽으로 뛰면 막을 수 있다는 ‘동물적 감각’을 믿고 뛰었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골문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우승 후보 호주와의 8강전(연장 2-1 승)에서도 수문장 조현우의 활약은 빛났다. 그는 호주의 결정적 슈팅을 수차례 막아내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조현우는 “사우디와의 16강전에서 상대 선수와 충돌해 오른쪽 허벅지 근육이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다. 호주와의 8강전을 앞두고 동료들이 모르게 통증 부위에 진통제를 맞고 출전했는데, 다행히 효과가 있었다”며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막고 (진통제) 맞고, 또 막았다”며 빙긋이 웃었다.

신들린 선방으로 골문을 지킨 조현우는 중앙일보와 만나 “우승 트로피를 들고 축하받으며 귀국하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장진영 기자

그는 전쟁 같았던 요르단과의 4강전의 뒷이야기도 전했다. 조현우는 전반전에 요르단 공격수의 강력한 슈팅을 안면으로 막아낸 뒤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조현우는 “슈팅에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았다.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였다. 그런데 실명할까봐 두렵기보단 ‘실점하지 않아 다행’이란 생각뿐이었다. 이 골을 막아냈으니 내 투혼을 보고 동료들이 골을 넣어줄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현우는 당초 ‘넘버 투’ 골키퍼였다. 주전 골키퍼는 김승규(알샤밥)였다. 조현우의 선방 능력은 아시아 정상급이지만, 빌드업을 중시하는 클린스만 감독은 발기술이 좋은 김승규를 중용했다. 그러나 조별리그 1라운드 후 김승규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중도 하차하면서 조현우가 선발로 나섰다.

예상하지 못한 출전 기회를 얻은 조현우는 든든하게 골문을 지켰다. 팬들은 “넘버 투 조현우의 재발견”이라며 기뻐했다. 조현우는 “언제 기회가 주어져도 완벽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준비를 잘한 덕분에 막을 수 있었다. 결과가 아쉽지만, 빨리 받아들이고 다음 A매치와 새로운 (K리그)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피주영 기자

불혹에 은퇴 손유희 “춤만 생각하며 살아… 만점 주고 싶다”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손유희(40)가 16일 발레 갈라 ‘코리아 이모션’ 공연을 끝으로 은퇴한다.

8살에 발레를 시작해 13살에 러시아로 유학을 떠난 손유희는 2001년 귀국해 당시 17세의 나이로 국립발레단에서 프로 무용수로서의 첫걸음을 뗐다. 그 후 미국 털사발레단과 한국 유니버설발레단에서 ‘바늘 문’으로 불리는 수석 무용수 자리에 올랐고 ‘호두까기 인형’의 클라라,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오로라, ‘지젤’의 지젤 등 인기 작품의 주역을 두루 거쳤다. 2012년 유니버설발레단 동료인 이현준 수석무용수와 결혼해 2018년 쌍둥이 엄마가 됐고, 2020년 유니버설발레단에 재입단했다.

지난 7일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만난 손유희는 “오로지 춤만 생각하면서 살았다”며 “춤을 대하는 마음가짐 만큼은 스스로 만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은퇴를 결심한 계기는.

“선화예중에서 무용과 실기 강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채용이 결정된 후에는 큰 고민 없이 결정을 내렸다.”

-미련이 남는 작품이나 배역은 없나.

“감사하게도 유니버설발레단과 미국 털사발레단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배역에 미련이 있었다면 은퇴 결정이 힘들었을 것이다. 평생을 무용수로 살아온 만큼 무대를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당연히 있다. 다만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다.”

-오래 전부터 지도자를 꿈꿨나.

“13살에 혼자 러시아로 유학을 갔다. 러시아어를 전혀 못 했고 향수병도 심하게 앓았다. 그때 한 은사님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연습실에서는 누구보다도 냉정하셨지만, 연습실 밖에서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그런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직업 무용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7일 서울 광진구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만난 손유희 수석 무용수.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미국과 한국에서 프로 무용수로 일했고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발레를 배웠다.

“유럽 발레와 미국 발레, 러시아 발레를 모두 안다는 게 내 장점이었다. 각각 개성이 뚜렷해 춤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예를 들면 프랑스 발레는 섬세한 발 동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학생에서 프로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걸 배울 수 있었다. 미국 털사발레단에서는 모던 발레를 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은.

“털사발레단에서 드라마 발레 ‘오네긴’의 타티아나 역을 맡았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누구의 것을 따라 하지 않아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된다는 걸 이때 깨달았다. 유니버설발레단의 ‘미리내길’도 각별한 작품이다. 문훈숙 단장님이 물 만난 물고기 같다는 평을 해주셨고 관객 반응도 좋았다.”

-어떤 순간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느끼나.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출산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 변했다고 할까. 춤에 대한 마음가짐도 바뀌었고 타인을 바라보는 태도도 변했다. 출산 전에는 온통 나 자신과 발레 뿐이었다면 이후에는 선후배들을 더 챙기게 되더라.”

-지도자로서의 목표는.

“한국은 무용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 경쟁적인 분위기도 강하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크다. 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이 되고 싶다.” 홍지유 기자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don't bet on it ; 너무 믿지는 마세요

(Sara and carol are having lunch…)
(새라와 캐럴이 점심을 먹고 있다…)

Sara: 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what I want to eat.
새라: 뭘 먹어야할지 전혀 생각이 안나네.
Carol: Don't look now but I see David Long having lunch with Tanya.
캐럴: 지금 쳐다보지는 마. 근데 지금 데이빗 롱이 타냐하고 점심을 먹고 있어.
Sara: He's been married for a long time.
새라: 그 남자는 결혼한지 오래 됐잖아.
Carol: He's taking a big chance eating in this restaurant.
캐럴: 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더니 큰 모험이군.
Sara: I thought he was happily married.
새라: 난 데이빗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줄 알았네.
Carol: I don't know but it doesn't look good.
캐럴: 난 모르겠지만 별로 좋아보이진 않네.
Sara: I'd like to believe that it's a business lunch.
새라: 사업상 먹는 점심이라고 믿고 싶어.
Carol: Don't bet on it.
캐럴: 너무 믿지는 마.
Sara: How can you be sure?
새라: 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Carol: They're holding hands.
캐럴: 손을 잡고 있잖아.

기억할만한 표현

▶ to not have the slightest idea: 전혀 모르겠다
"I don't have the slightest idea how to fix my car."
(전 자동차 고치는 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 take a chance: 모험을 감수하다 도박이다
"She took a chance and bought the house."
(그녀는 모험을 감수하고 집을 샀습니다.)
▶ I'd like to believe … : ~하다고 믿고 싶다
"I'd like to believe that she's telling the truth."
(전 그 여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낱말퀴즈

■	1	■	2		3	■	4	■
5		6		■	7			
■	8		■	9		■		■
10		■	11		■	12		13
	■	14		■	15		■	
16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	24			■		■

●가로 열쇠
(2)봄의 경치를 즐기러 나들이 나온 사람. 해마다 봄철이 되면 주요 관광지마다 ~이 몰려든다 (5)예로부터 전해 오는 아름답고 좋은 풍속 (7)아주 친한 친구 사이의 사귐. 중국의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이 퍽 두터웠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8)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씀.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으로 이루어진다(에디슨) (9)그릇, 가구 따위를 꾸미기 위해서 박는 쇠붙이. 장롱의 ~이 떨어져 나가다 (10)큰 물결 (11)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함 (12)아들 많은 집의 외딸 (14)여객이나 화물 등을 검사 및 소독, 조사하는 일 (15)보고 들음. ~이 넓다 (16)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 (18)가슴 한복판. 이번 일은 정말로 기가 막히고 ~ 터질 일이다 (19)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따는 일 (20)손아래 누이의 남편 (21)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음 (22)충성을 다하여 나라가 베푼 은혜에 보답함. 진□□□ (23)두 손을 땅에 짚고 반대 방향으로 넘는 재주 (24)필요한 물건이나 이익이 많이 나오는 곳

●세로 열쇠
(1)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큰 물결. 질□□□ (2)호주권이나 재산을 이어받음 (3)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방식 (4)하늘과 땅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령. ~께 비옵나니,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6)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일 년으로 하는 달력 (9)인위적으로 씨를 뿌려서 기른 산삼 (10)잠옷 (11)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의 글로 옮기는 일 (12)육체적 고통을 주며 신문하는 일 (13)호흡이 균형을 잃어 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증세 (14)둘째 손가락 (15)제복의 어깨에 붙이는 표장 (17)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음 (18)본디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듦 (19)얄팍한 돌을 물 위에 던졌을 때 그 튀기는 자리마다 생기는 물결 모양 (20)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 (21)코와 윗입술 사이에 오목하게 골이 진 곳 (23)세상에 널리 알림. ~ 사항

■	질	■	상	춘	객	■	천	■
미	풍	양	속	■	관	포	지	교
■	노	력	■	장	식	■	신	■
파	도	■	번	뇌	■	고	명	딸
자	■	검	열	■	견	문	■	꾹
마	사	지	■	복	장	■	물	질
■	기	■	매	제	■	인	수	■
진	충	보	국	■	공	중	제	비
■	천	■	노	다	지	■	비	■

스도쿠

						2		
	2	4			5		9	
	7	5			8			
7	5		9	3				8
3				4	1		6	2
			6			1	8	
	9		7			3	4	
		8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1	3	4	6	9	2	7	5
6	2	4	3	7	5	8	9	1
9	7	5	2	1	8	6	3	4
7	5	2	9	3	6	4	1	8
1	4	6	8	2	7	9	5	3
3	8	9	5	4	1	7	6	2
2	3	7	6	5	4	1	8	9
5	9	1	7	8	2	3	4	6
4	6	8	1	9	3	5	2	7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 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 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 Pay to the Order of :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외계인**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척추 디스크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ar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2월 구인광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직원 구함

센터빌, 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O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털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보험 사무실 직원모집

페어팩스에 있는
보험 사무실에서
오래동안 같이 일하실
직원을 찾습니다.

▶ 풀/파트타임 가능
▶ 영어 가능하신 분
▶ 보험 라이센스 소지자 환영
▶ 401k, 건강보험, PTO

www.uniwfm.com
이메일
vaoffice.uni@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코웨이 DC 지점
직원 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MD,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센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염가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환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 풀타임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매릴랜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디 / 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MD,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아난데일 부동산회사 -리셉셔니스트 구함.
Megarealty@gmail.com
▶703-534-4989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첸틀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
*스폰가능
ceo@hanmipost.com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타임/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멀에 위치한 시계및 쥬얼리 리페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파타임 & 풀 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패니쉬)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luvacct1986@gmail.com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 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펀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Personal Injury firm in Fairfax City is seeking a full-time legal assistant. Please email resume to:
Cyoon@davidmarkslaw.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센터빌,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MD 베데스다 한방병원
바디 /페이셜 마사지사
월도프 지역 도넛가게에서
낮 시간대 함께 일 할 여자분 구합니다.
▶301-609-0432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가능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 병원에서 메디칼 어씨스턴트와 리셉션니스트 파타임, 풀타임을 구합니다. 703-505-0204
mmaturimed@gmail.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vehandhomehealth.com

MD Germantown]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풀/파트)
본사는 MD Germantown에 위치한 중형치과 기공소로 사세 확장을 위해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 Accounting, Inventory, Order, Customer Care 등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 분
* 영어 회화에 문제가 없으신분
* 풀/파트타임 가능 * 경력자 우대 합니다.
이메일 : confidental.hr@gmail.com
전화문의 : 240-477-5683

덴탈 어시스턴트 / 프론트 데스크 구함
경력자 우대 초보자도 환영
p : 410-480-5234/ 지역 : 엘리콧시티

닥터오피스 프론트 직원 구함
풀타임, 한국어/영어, 컴퓨터 스킬
703-642-0900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 gofcrc@gmail.com

병원에서 일하실분
Catonsville/ 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우대
Manager /Receptionist (Full time)
* Vacation/Sick/Holidays
* Medical Insurance
*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패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 PM-8:30 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옵션 (10 AM-4PM)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험,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페어팩스 성형외과 리셉션니스트 구함
이중언어, 풀/파트타임 월-금.
베네핏: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초보 추레이닝,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제출: anyosupa@yahoo.com
703-981-6491 문자요망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 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센터빌 Honest Grill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Cafe June 에서 풀/ 파트타임 샌드위치 싸실분, 유무경험자, 엘리콧시티
443-310-9247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스프링필드(VA) 막창도둑 코린안 bbq
서버, 해드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 1127

Breakfast 주중/주말, F/P($20+tips/hr) server 6am-2pm DC, CUA metro 근처
703-785-8763

애난데일 토속촌에서 웨츄레스 구함
703-333-3400

MD 포토맥 지역 뉴일식당
스시맨, 서버, 캐쉬어 풀/파트타임 구함
703-405-7272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 모집
* College Park Area, MD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핸디맨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POS 지원/ Pricing Analyst/Lead Cashier
*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 이중언어 가능자
* PT 20~35HR : $17~20/h
* 간단한 자기소개서는 Email: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챈틀리 Cafe Moment
금/토/일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Chantilly Cafe Moment looking for Fri, Sat, Sun afternoon part time.
703-376-8090
thecafemoment@gmail.com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FOR SALE
Air Compressor 20 HP (22 volt)
$1,800
Air Compressor 5 HP (22 volt)
$1,000
* Air Compressor는 현재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58-6384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자격 :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근무 혜택 :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요!$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캐시어 구함. 볼티모어 지역. 높은페이 델리
443-621-4951

(구직) 히바치쉐프 파트타임 가능
443-620-4420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아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파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 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세탁/얼터레이션〉

스테포드 지역 픽업스토아에서
수선 및 캐쉬어 하실 분
Tel. 703-628-9100

픽업스토어에서 바느질 하실분(파타임)
엘리콧시티 지역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토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트·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 분
파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 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쳐지 지역
703-577-5866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HD Plus Construction
커머셜 캐비넷 및 밀웍 제작에 능한 팀원 모집
- 드로잉 이해가능, 코리안 카운터탑 경험자
- 높은페이, 평균이상 근무시간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베네펫,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어시스트 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경험자 우대. 숙식하실 분.
410-961-301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Valentine's Day Week (2/13 and 2/14)
동안 일하실 구합니다.
이메일 : joymiahan0629@gmail.com

Mclean/Tysons, VA 아이들 하교 bus 도와
주고, 간단한 cooking, 운전 필수. Part time
718-309-4969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 분
훼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덕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 (파/풀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씨터 구함 Vienna , 주5일 , 1-6pm ,
아기 픽업가능한 분 , 성실한 분
213- 839- 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 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첸틸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밤청소 하실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하실 분 파타임 남여1명
장소 칼레지팍 MD 경험자우대
703-725-1233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하실 분
을 모십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 703-505-5211

RENT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우드브릿지 타운홈 $2,500
방3, 화2½, 1 Car Gagage, Hardwood
Floors, 4 Levels, Updated Kitchen,
Large Deck, Walkout Basement.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세탁기, 새 부엌 ,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

클리프톤, H마트 3분, 싱글홈 렌트.
방4, 화4, 전층 리모델. $3,900
(12/10 이사가능)
571-215-3070(문자요망)

센터빌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세입자 구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펙스 타운홈 $3,000. 방 3 화 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 집 전
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
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ss.f(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펙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 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모던 스타일 콘도
703-762-6759

즉시입주, 애난데일 H-mart 근처 콘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
독신남녀환영. 완전 취사가능. 가구완비.
이름 & 이사날짜, 문자로만
571-251-0354

〈방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룸 메이트 구함 애난데일(교통편리)
잠만 자실 분(남자), 인터넷 및 가구 완비
703-560-6424

Fairfax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703-678-7833

NOVA, GM U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571-214-0188

이노바 병원 근처 단독주택 Walk-out 지하
전체(입구 따로 있슴) 방2, 목욕탕 2, 거실, 취
사 가능, $2,000(전기, 가스, 물, 인터넷 포함)
문의: 703-975-4989 (문자만 주세요)

애난데일 방 세 놓음 703-966-9597

MD 실버스프링 싱글 홈 이층
마스터베드룸 쓰실분. 가구·인터넷 완비,
한아름10분거리, 넓고 조용함
240-543-6427

애난데일 방 렌트. 방에 욕실, 키친, 침대,
책상, 냉장고 완비, 개인 주차자리도 있음.
571-232-6052

설악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 출입문별도, 간단취사, 금연자
571-243-6295

노스포토막, NIST 근처 싱글홈 반지하
출입문 별도,넓은 거실,부엌,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

센터빌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2+Full Bath
571-830-4053

패어팩스지역 GMU 걸어서 1분거리 2층방
단독화장실 주방 주차편리
347-421-7894

단독주택 2층 큰방/주차/인터넷/ 가구완비/
냉장고 별도/ 샤워별도/29 번과 198 번 만
나는지점, Burtonsville, MD 20866
240-413-2738

애난데일 중심 싱글홈 베이스먼트, 워크아웃
703-606-0700

폴스처지 싱글홈 지하 룸메이트 $450
즉시입주, 작장남자분 환영
571-224-3383

MD 저먼타운 싱글 2층 방1개 , 침대,
가구 완비, 뉴그랜드마트 옆, 인터넷(유포)
301-538-1438

훼어옥스몰근처 방 Rent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mr. 권(571)525-4220

페어팩스50번도로 66도로사이
비엔나전철역근처 방 렌트, 남자 직장인환영
571- 530-7322

페어펙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애난데일 노바대학 공원 옆 싱글홈
가구, 침대, 나무 마루 등 모든 것이 갖추어진
깨끗하고 조용한 집, 방 1개/2개(욕실 별
도). 학생, 직장인 환영
문의: 703-336-328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커머셜 콘도 800sq 렌트합니다.
571-237-3411

애난데일 한강뒤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애닌데일 콘도 $200,000
방1, 화1, 745s.f., 계단없는 1층.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 넓은 리빙룸. New Siding Door. 꿀돼지 식당 옆 동네, 교통편리.
▶703-477-3114

애닌데일 콘도 $250,000
방2, 화장실1, 리모델한 콘도, 938s.f.
넓은 리빙룸, 남향 밝은집, 나무마루, 새부엌, 새화장실, Elevator, New Windows, New HV/AC, H-Mart 근처
▶703-477-3114

프레드릭스버그 타운홈 $399,900
2019년 새단지새집. 1 Car Garage, End Unit.방3, 화장실3½, 탁트인 구조. Walkout Basement, 밝고 환한집. 넓은 Deck, 파킹장 많으며 큰 호수가 있음.
▶703-477-3114

맥클린 콘도 $352,000
방1, 화장실1. 962s.f. Many Upgrades, Newr Appliances, Newr HV/AC. Tyson's Corner 가까움. 밝고 환한 콘도. Washer & Dryer.
▶703-477-3114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 H-mart옆 엘리베이터 있는 콘도.
방2, 화장실2, 3월 귀국, 오너 급매.
703-350-1986

〈부동산/상업용 매매〉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랜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 입니다
▶ 571-421-086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옆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 $9,500/렌트 :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쿼 비지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생활안내 703-281-9660,1(문자)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 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 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 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집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분, 세탁소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 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 바람)

애난데일 마트안 한중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424-6451

버지니아에있는 미용실 찾는 분 연락주세요.
(오후 6시후 문자주세요)
571-277-7758

기타

치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써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쉘터 C
• 시간 :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 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타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싯가로 판매
443-355-7700

해피 라이딩 (bike riding)
평일 오후/ 도로와 흙길/ Wakefield park
703-945-2991 (message)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 매매〉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150, 이탈리아 가죽 쇼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연 삿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 바람
240-796-0093

2012 Hyundai Santa Fe 6 Cylinder SUV Silver (현대 산타페 은색) 82,000 mile Good condition $9,500
703-350-1986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 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 베레스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쥬키 미싱 dll 8700 세탁소용
햄 미싱 USA , 4인용식탁 매매
240-475-4166

혼마 남성용 골프채
- 2 스타(02) 아이언 7pec
- 3 스타(03) 드라이버 9.5° 우드, 유틸리티
- 4 스타(08) 드라이버 /3번 우드
- 4 스타(07) 5번 우드
- 4 스타(07) 아이언 8pec
410-913-8215(문자 주세요)

닛산 로그 2011년 Good
블랙, 191k, As is 판매가 900불
443-956-9105 (문자 먼저)

골프채 싸게 팝니다. 남성용 혼마 LB 280
703-300-8669

여자3스타 혼마세트 2여행용가방 1카트 가격조정가능 문자요망
240-500-0035

남성골프채 DRIVE
1)일제 KAMUI ASIRI 고반발 Gold 10도 /R $600
2) PXG 0811x+PROTO 10.5 도 /R $170
301-717-7960

물만 필요한 저렴한 낚시대 세트 $10
연한 베이지바탕 디자인 그라나이트 2' x 2' $45 / 2개 $80
703-268-8669

은퇴로 덴탈랩 장비와 재료 총$500
240-423-9968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 덱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덱,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융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 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및 얼룩제거 , 브러쉬 ,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핫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 MD/VA/DC 지역
▶703-346-5962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직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덱, 마루, 캐비넷 샌딩 보수
플로밍. 핸디맨 써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RADON GAS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긴급! 202.774.6554

NRPP 면허소지 202-774-6550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귀국 이사 전문
▶자체 창고 보관
▶타주, 시내 이사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팩션 도와드림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림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Nest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 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융 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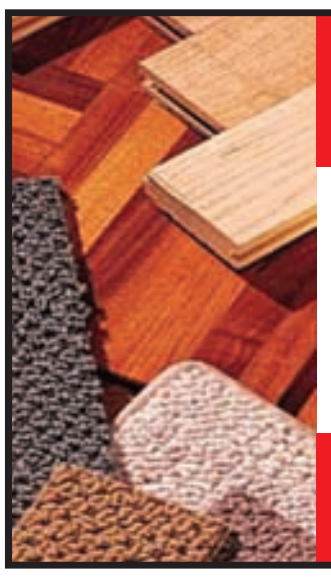
703-582-7757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703.909.0988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큼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풀청소 (덱,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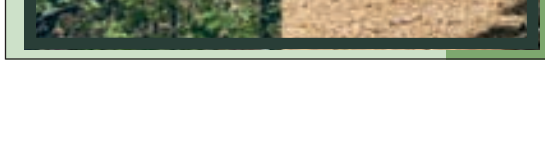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시공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 /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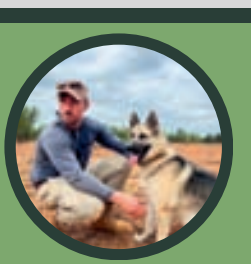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덤불,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융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월드뱅크카드서비스]
WBS POS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www.worldbankcard.com
최신
POS 시스템
최저
가격 보장
◆ 간편하고 쉬운 POS
◆ 재고 관리 기능
◆ Warehouse와 Multi-Location 관리 가능
◆ 고객 멤버십과 기프트 카드 가능
◆ CUSTOMIZE 맞춤형 POS 가능
※ POS / ATM / 크레딧 카드 터미널 문의 환영(Apple Pay 됩니다.)
Pay
WBS의 목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보다 높은 이익성과 안정적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맞춤서비스
동종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컬 담당자
고객님들의 요청에 언제나 응대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지원
모든 고객분들을 위해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WBS
WORLD BANKCARD SERVICES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1-800-WBS(927)-5675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ww.worldbankcard.com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 L.A

구인

스시쉐프
유진 오레곤 일식당
유경험자,숙식제공
alexhan0108@gmail.com
(541)760-8205

스시맨/주방쿡
숙식제공,죠지아주지역
(646)229-2708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하숙·렌트

고급 노인아파트(62세+)
싱글 $1,153, 1Br $1,228
2Br. $1,471 A/C, 냉장고완비
Income Limit (섹션8)
주소: 1221 W. 7th St.
(213)623-2010 (영어로)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비즈니스 상용 융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융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융자 간단하고 빠른 융자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융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융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융자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Partial&Denture

풀타임, 초보자 환영
N.캐롤라이나주 샬롯 지역
704.806.3068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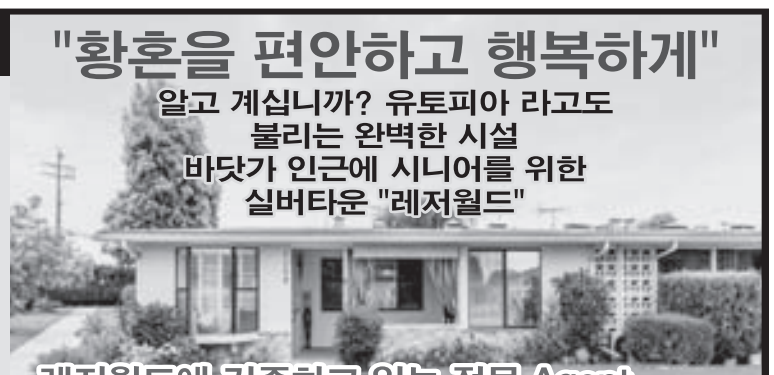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의학박사 서영수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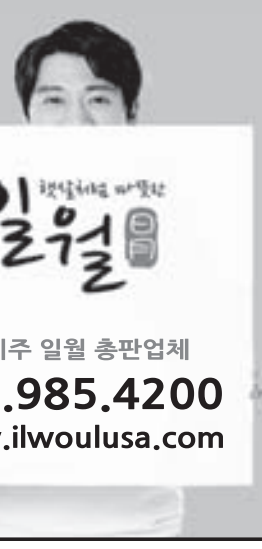
부에나팍
천종산삼원
구정맞이 특별세일
천종산삼
소중한 분께 '명품산삼'을 선물하세요
산삼에 대한 궁금증을 "산삼전문가"가 해결해 드립니다

특별세일!
$500
$300
$200
$100
두 박스 구입시 한 박스 공짜!!!
(선착순 Only)

최상급 명품 생산삼 세일(선착순) ~~$2500~~ ▶ $1500

상담 문의 213 382 9191 | 562 400 0072
7342 Orangethorpe Ave. #A-102
Buena Park, CA 90621
천종 산삼원 정성과 소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부동의 1위 일월



올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대표 브랜드 대상
한국 온열매트중 일월만 인증 UL®
찜질방 효과 탄소열선 원적외선 방출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계 탄소열선
물세탁 가능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화재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 퀸 ~~$379~~
트윈 $229 | 퀸 $279

탄소 원적외선 향균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 더블 ~~$299~~
싱글 $169 |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 더블 ~~$359~~
싱글 $219 | 더블 $259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페트
중형 ~~$385~~ | 대형 ~~$465~~
중형 $335 |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 퀸 ~~$419~~
트윈 $299 | 퀸 $369

편리한 쇼파용 온열매트
~~$129~~
$79

독점
완전 리모델한 엔드유닛 콘도
Centreville $329,900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마루,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트

독점
2019년 엔드유닛 타운하우스
Fredericksburg $395,900
새단지, 방3, 화장실3½

독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695,000
Costco 동네

독점
밝고 예쁜 콘도
Manassas $219,900
End Unit, 세탁기·건조기 있음, Costco 가까움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대표 정희수
703.477.3114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